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2020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0

[HTTP://COMPUTERMUSIC.ASIA/](http://COMPUTERMUSIC.ASIA/)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2020

2020.10.28.WED. ~ 10.31.SAT. PM7:30
JAYU THEATER, SEOUL ARTS CENTER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주최 : 한국전자음악협회 KEAMS.ORG

주관 : 한다우리 예술기획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리굿성형외과, 코스모스악기, 이화미디어

협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컴퓨터음악연구소, 추계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전자음악연구소,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인터넷 예매 : www.sactick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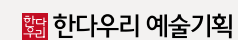
모바일 예매 : m.sacticket.co.kr

Organized by Korea Electro-Acoustic Society

Supported by Handa Woori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Very Good Plastic Surgery,
Cosmos Corporation, Ewha Media

Cooperated by Computer Music Lab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Center for Research of Electro-acoustic
Music and New Music at Hanyang University, Center for Arts and
Technolog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0를 개최하며

1993년 창립한 한국전자음악협회는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뜻 깊은 음악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7년 전 전자음악이 생소한 시절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전자음악협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해에 십시일반으로 장비를 모아 첫 컴퓨터음악제를 열었습니다. 2000년 새천년을 시작으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자음악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21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현재는 과학기술발전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를 과거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말이 이제는 생소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급변하는 이런 현상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도구를 갖고 새로운 이상을 펼칠 기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맞는 27주년의 한국전자음악협회의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에서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음향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자음악협회 회장 **이돈웅**

Starting SICMF 2020

This year marked the 27th anniversary of KEAMS(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founded in 1993. We are very welcome to everybody who visits this festival and conference.

27 years ago, Korean composers and scholars who had been passionate in 'electroacoustic music' were gathered, and founded this society in the time when the word was even unfamiliar to public. Next year, we opened the first Korean computer music festival with collected audio equipment and devices from each schools and individuals. Since the festival was extended and reborn internationally in 2000, SICMF continues to represent KEAMS until today.

Composers pursue novelty and creativity especially in electroacoustic music. We are already in 21st century when new technology and steep development of science push us not to stay still in the pas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and Autonomous Driving are not unacquainted words anymore, and it is about to come into our life.

Some might feel a sense of crisis from it, but we, artists and composers, should explore new artistic ideals with it, which will be a great chance to begin a new era of art.

With a humble announcement of the 27th anniversary, we hope you can catch a glimpse of the new musical art of the new era during SICMF this year.

President of KEAMS **Donung Lee**

CONCERT 1

fest-m 2020 선정작품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7:3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Wednesday, October 28, 2020, 7:30pm, Jayu Theater at the Seoul Arts Center

01	이준호 Junho Lee	"거울(mirror)" for 4-ch audiovisual
02	김수진 Sujin Kim	"Circular Point line and plane" for 4-ch live-audiovisual
03	이본 Bon Lee	"화(hwa)"for 2-ch tape
04	이지선 Jiseon Lee	"가면극놀이(Persona)" for soprano and 2-ch tape soprano : 이새미 Semi Lee
05	임다은 Daun Lim	"Pinball" for 2-ch tape
06	공재이 Jae Kong	"existential circus" for 2-ch audiovisual
07	정경희 Kyunghee Jung	"입자단위의 생각(Thought of Particle Unit)" for 2-ch tape
08	김숙영 Sookyoung Kim	"Revolution and Rotation" for laptop and 2-ch live-electronics

CONCERT 1

01

이준호 Junho Lee

"거울(mirror)" for 4-ch audiovisual

거울은 빛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다. 비단 자주 사용하는 유리 거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질과 빛의 다양한 성질을 상상하며 거울과 상호작용하는 빛을 전자음악과 오디오 리액티브 영상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A mirror is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information of light is delivered. The light that interacts with the mirror by using various factors—not only glass, but also multiple properties of light—was visualized and represented using electrical music and audio-reactive video.

02

김수진 Sujin Kim

"Circular Point line and plane" for 4-ch live-audiovisual

음악이 곧 어떤소리들을 어떻게 결합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 이라면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곡이다. 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파형인 사인파(Sine wave)를 최대한 활용해 만든 곡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도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적인 요소 또한 가장 기본단위인 점,선,면(point, line, plane) 3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색깔 또한 흑백으로만 구성하여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음악과 영상에 녹아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If music is focused on studying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sounds, this piece is based on the foundational question: "How should the sound be created?" It maximized the use of the most basic wave pattern, Sinewave, and incorporated the composer's intention to return to the basics. Similarly, the graphical elements are divided

into three basic units: point, line, and plane. The colors are composed of only black and white to depict the absorption of the simple and basic elements into music and video.

03

이본 Bon Lee

"화(hwa)"for 2-ch tape

원래의 자신의 것을 버리고, 노력에 의해 규칙과 불규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음)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결국 인위적인 방식을 탈피해 자신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유롭게 보여준다.

A uniform target (sound) is composed of regularity and irregularity by the endeavor, thus leaving the original form. However, that sound eventually outgrows the artificial approach and freely demonstrates its true nature.

04

이지선 Jiseon Lee

"가면극놀이(Persona)" for soprano and 2-ch tape

인간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에 맞춰 자신을 꺾고 다듬어 간다. 그렇게 보여지는 단편적인 모습들로 판단하고 판단되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맞춘 보급형 인간이 된다. 비슷한 틀 안에서 서로가 가면을 쓰고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한 각기 다른 매력과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검은검은검은' 모두가 까맣게 존재해 '검은 검은 검은...'. "tape" 은 충돌하는 내면을 "soprano" 연주자는 내면의 또 다른 소리를 작은 손짓, 입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극을 이끌어간다.

CONCERT 1

Humans shape their images according to societal demands. They judge each other based on shallow and fragmentary forms, and thus lose their unique identity and become mediocre versions of themselves. Everyone hides behind a mask to fit into the norms. Although individuals may have their individual charms and unique colors, they all gradually become the same black color. "Tape" represents the inner world in a crash course, whereas the "Soprano" singer leads the show with little hand gestures, sounds from the mouth, and actions to represent other sounds of the inner world.

05

임다운 Daun Lim "Pinball" for 2-ch tape

쇠 구슬이 튕겨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며 레버를 왼 손 힘에 신중해지니 어느새 수백 개의 구슬이 사방에 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I became cautious about the pressure on the lever while continuously watching the bouncing iron-bearing balls, and eventually, hundreds of bearing balls were rolling all around.

06

공재이 Jae Kong "existential circus" for 2-ch audiovisual

2020년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기를 마주한다.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상징이었던 2020년을 현실로 맞이한 우리는, 상상 속 2020년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이브 한 것이었는지를 농담삼아 이야기하며, 새해의 첫 며칠 만에 제3차 세계대전을 밈(meme)으로 소비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위기를 매 달 당면하고 있다. 동시대의 위기가 수십년 전과 달라진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위기를 한번에 통찰해야 하고, 그 모든 위기에 대해 어떻게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정치적 위기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트위터는 위기 상황에 대해 분열된 수많은 잡담을 흠뻑린다. 페이스북은 위기에 대한 냉소적인 밈을 당신의 부모님에게 공유하며, 인스타그램은 #FreeHongKong 대신 #홍콩맛집으로 애써 가짜 행복을 퍼트린다.

작품은 평범한 가상의 한 인물을 상징하여 그의 하루를 표현한다. 영상으로 나타나는 그의 하루는 2차원 웨이브 테이블로 해석되어 소리로 변환되고, 이는 다시 연주자가 조작하는 스캔 신호를 통해 영상으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작품의 입력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파편화된 위기와, 퍼포먼스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려지는 희망적-이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을 번갈아가고, 이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머와 음악을 연주하는 퍼포머는 서로 일종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 대화는 압도적인 양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일상적 대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증폭하며 진동하여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 위기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year 2020, which few people had considered a symbol of the future. However, this year has instead brought numerous crises every day, thus leading people to jokingly discuss the ridiculous and naïve expectations we had about 2020. Only a few days into the new year, we were making memes about the possibility of a Third World War occurring and with each passing month, we

CONCERT 1

07

정경희 Kyunghee Jung "입자단위의 생각(Thought of Particle Unit)" for 2-ch tape

인간의 뇌 세포인 뉴런은 신경계의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한다. 뉴런의 기본기능은 자극을 받았을 경우 전기를 발생시켜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간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절망을 느낄수 있게된다. 이 곡에서는 하나의 뉴런이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할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아주 작은 전기 입자들의 움직임을 표현해 보았다. 서서히 느껴지는 공포, 엄습하는 두려움, 짜릿한 쾌감, 폭발하는 분노등을 느낄때 전 기신포 안의 입자들은 각각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 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 까. 우리는 갑작스러운 슬픔이라 표현하지만 그 안의 입자들에게는 가장 느리게 흘러 가는 순간이었을 수도, 천천히 스며드는 사랑이라도 입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입자들은 또 다른 사건으로 흘러간다.

The neuron, the human brain cell, transmits stimulants and excitement to the nervous system. The basic function of a neuron is to send information to another cell with electricity when stimulated, thus allowing humans to experience happiness, sadness, anger, and despair. This piece expresses the movement of minute electricity particles in a neuron when it transmits neurotransmitters. When we experience gradual fear, seizing terror, thrilling pleasure, or exploding rage, the movement of the particles in the neurotransmitters will differ. What would be the thoughts of these particles? Although an emotion is described as "sudden sorrow," it could represent the particles' slowest movement. On the other hand, even if a feeling is described as a slowly pervading love, it could represent the most prompt and rapid movement of the particles. The particles then move onto the next event.

CONCERT 1

08

김숙영 Sookyoung Kim
"Revolution and Rotation" for laptop and 2-ch
live-electronics

시공간으로 가득 찬 우주에 대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도
이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남겨지는 시공간의 왜
곡 현상을 주목 하였다. 질량으로 가득찬 우주와 지구, 두
물질 간의 마찰로 인한 소리는 과연 어떨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시공간에 남겨진 공전, 자전에 대 한 흔적들을
소리로 상상해 보며 작업하였다. 첼리스트 2명의 연주를
녹음하여 소리들을 입자화시키고 이를 재배열 하는 과정
을 담았다. 공허 속에 울리는 공전과 자전을 노래하였다.

This sound work attempts to simulate the sound
of the universe that fills space-time. I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distortion of space-
time during the revolution and rotation of the
Earth. It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the sound
created by friction between two matters—the
universe and Earth full of mass. This sound
work focuses on imagining and simulating the
traces of the revolution and rotation in space-
time. This includes the process of recording the
performance of two cellists, and graining and
rearranging the sound. It portrays the revolution
and rotation resonating in the emptiness.

CONCERT 2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7:3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Thursday, October 29, 2020, 7:30pm, Jayu Theater at the Seoul Arts Center

- | | | |
|----|--|---|
| 01 | 몬테 테일러
Monte Taylor | "Sigil II: Amistad" for alto saxophone and 8-ch live-electronics
saxophone : 윤여민 Yeomin Yoon |
| 02 | 니콜라 푸모 프라테지아니
Nicola Fumo Frattegiani | "Banlieue cuivrée" for 2.1-ch tape |
| 03 | 에거스틴 스피네토
Agustín Spinetto | "A short period of time and sound" for 6-ch audiovisual |
| 04 | 루 민지에
Minjie Lu |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for 2-ch tape |
| 05 | 니콜라스 사히드
Nicholas Shaheed | "Wire Spill" for for kalimba and 2-ch live-electronics |
| 06 | 박재영
Elsa Jaeyoung Park | "Encroaching" for 6-ch tape |
| 07 | 박순영
Soonyoung Park | "Go(孤-鼓)!" for clarinet and 2-ch live-eletronic
clarinet : 김건주 GeonJoo Kim |
| 08 | 나오토 이와키
Naoto Iwaki | "the wave" for 2-ch tape |
| 09 | 션 핼로웰
Sean Hallowell | "Uneven Turns" for 8-ch audiovisual |
| 10 | 폴 윌러스
Paul Oehlers | "Flux Hammer" for 2-ch tape |
| 11 | 김태희
Taehee Kim | "Breath" for clarinet and 8-ch live-electronics
clarinet : 김건주 GeonJoo Kim |

CONCERT 2

01

몬테 테일러 Monte Taylor

"Sigil II: Amistad" for alto saxophone and 8-ch live-electronics

<시질 II: 아미스타드>는 호세 팔라의 "아미스타드 아메리카"에 묘사된 다문화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컴퓨터가 생성해낸 다양한 사운드 스케이프를 향해하면서, 색소폰은 서로 경쟁하는 여러 스펙트럼의 혼돈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은 여러가지 복잡한 소리의 결로 이루어진 풍성하고 조화로운 질감으로 합쳐진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독주자로서의 색소폰 연주자의 역할은 색소폰이 다양한 스펙트럼 속으로 녹아들면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시질 II: 아미스타드는> 시질 제작 관습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일련의 작품 중 두 번째 작품이다. 혼돈의 마법속에서 시질은 의지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 마법사가 만들어낸 심볼이다. 시질 제작은 보통 하나의 문장이나 구절로 의지를 적는 행위, 이러한 문장이나 구절을 개별 상형문자로 해체하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해체된 상형문제를 마법사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심볼로 재배열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Sigil II: Amistad reflects on the themes of multiculturalism depicted in José Parlá's Amistad América. Navigating various computer-generated soundscapes, the saxophone struggles to maintain its identity amongst the chaos of many competing spectra. Over time, the various spectra coalesce into a lush, harmonious texture composed of many complex grains of sound. Over the course this transformation, the saxophonist's role as a soloist begins to fade, as the saxophone dissolves into the various spectra. Sigil II: Amistad is the second in a series of pieces inspired by the practice of sigil making. In chaos magic, sigils are symbols created by the magician to manifest a will or desire. This is usually accomplished by writing down one's will as a single sentence or phrase, deconstructing it

into its individual glyphs, and then rearranging them into a symbol that holds meaning only to the magician.

02

니콜라 푸모 프라테지아니 Nicola Fumo Frattegiani
"Banlieue cuivrée" for 2.1-ch tape

반리오 퀴브레. 교외의 낯선. 몽개진 콩크리트. 물질의 파편화, 물질의 확고하고, 순수하며, 단일체적인 부동성과 균형이 맞추어진 물질의 혼돈과 에너지. 시멘트는 금속과 가죽을 통해 변화되었다. "반리오 퀴브레"라는 표현은 시멘트 마그마의 변형되고 역동적인 변동과 느슨함, 그러나 또한 도시 건축학적 맥락속에 승화된 정지 상태의 포즈를 통해 시멘트 마그마의 생명을 보여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콘크리트이다. 특정한 물질. 우리의 일상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사실". 단단한 물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액체 형태로 온다. 콘크리트. 교외. 반리오. 회색이라는 색깔. 이 작품은 철금과 막명악기의 콘크리트 샘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황동은 음악적 맥락에서 주된 금속의 색깔로, 따라서 프랑스로 된 두번째 용어인 퀴브레가 붙었다. 서로 다른 존재론적 소리 위상으로 숨결을 번갈아 내쉬는 이 구리 덩이는 결과로 나타난 술어학적 문법이다.

Banlieue cuivrée. Suburb brass. Crumbled concrete. The matter fragmentation, its chaos and energy, counterpoised to its implacable, pure and monolithic immobility. The cement shifted through the metal and the leather. The expression "banlieue cuivrée" comes from the will to represent the life of a cement magma with its morphed and dynamics fluctuations, its slackening and but also with its static poses sublimated in the urban architectonic context. Hence concrete. A specific matter. A "fact" surrounding our daily space. A rigid corporeality but that comes in liquid form. Concrete. Suburb. Banlieue. The colour grey. The composition has

CONCERT 2

been built using exclusively concrete samples of metallophones and membranophones instruments. Brass is the dominant metal colour in the musical context, hence the second French term cuivrée. To this light a copper mass, alternating its breath in different ontological sound statuses, is the resulting terminological syntaxes.

03

어거스틴 스피네토 Agustín Spinetto

"A short period of time and sound" for 6-ch audiovisual

<어 쇼트 피리어드 오브 타임 앤드 사운드>는 그가 도쿄 예술대학에서 유학 중에 쓴 음악 작품이다. 루프의 사용 및 변형이 이 작품의 주요한 창의적 방식이다. 그는 음악 프로그래밍, 루퍼, 또는 아날로그 시퀀서 등과 같은 서로 다른 도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루프를 만들어내어 다양한 결과를 내놓는데 대부분의 이들 결과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작품은 라이브 연주할 때마다 음향이나 시간 면에서 고유한 작품이 된다.

그는 이 작품을 작곡하던 때와 같은 시기에 개발된 새로운 오디오 소프트웨어인 오디오스텔라를 주요 도구로 사용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메인 스크린에 영상될 특정한 2D 공간에 샘플을 구성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오디오 샘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프트웨어는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소리나 루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들 샘플의 재생산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맥스나 에이블톤 같은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오디오스텔라의 가능성이 배가되어 작곡가의 특성에 완벽히 적합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 작품은 2020년 1월 12일에 타마 뮤직 페스티벌에서 발표되었다.

"A short period of time and sound" is a music composition written during the composer's abroad studies at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he use and transformation of loops is the main creative method of this work. The composer

creates them in multiple ways with different tools such as music programming, loopers or analogue sequencers, bringing a variety of results, in most cases, impossible to be replicated and making every live performance of this piece unique in sound and time.

The composer use Audiostellar as a main instrument, a new audio software applic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e work has been composed. This software is based on audio samples that use AI to organize this samples in a particular 2D space that will be projected in a main screen. Meanwhile, the software is capable of manipulate the reproduction of this samples in order to make predictable or unpredictable sounds or loop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with other instruments such us MAX and ableton multiplies the possibilities of Audiostellar, resulting in a powerful tool perfect for the composer characteristics. This work was presented at Tama Music festival on January 12th of 2020.

04

루 민지에 Minjie Lu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for 2-ch tape

이 작품은 28.2 채널 오디오 환경에서 모두 가능한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이다. 작곡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팬이다. 이 영화는 딜런 토마스가 쓴 소네트 "두 낮 고 젠틀 인투 더 굿 나이트(Do not go gentle into the night)"를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다. 거대한 재앙에 직면한 인류의 강렬한 탐험속에서 이 소네트는 생명과 인간 본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주로 시 "두 낮 고 젠틀 인투 더 굿 나이트"와 코시 풍경 소리의 샘플링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몇 가지 음향 처리 기술을 통해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 속 소리의 질감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일렉트로닉 음악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CONCERT 2

인류 생존의 행성은 "운명 공동체"라는 글로벌 빌리지로 발전했다. 야생의 우주로부터의 관점에서, 작곡가는 불굴의 저항정신을 표현하고 재앙에 직면했을 때의 삶의 태도를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고 있다. "인류 운명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빌리지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과 성찰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is an electroacoustic music both is available for 28.2 channels audio environment. The composer is a lover of Christopher Nolan's film Interstellar. The film extracts the sonnet Do Not Go Gentle into the Good Night written by Dylan Thomas. In the fierce exploration of mankind in the face of huge crises, it reflects the value of life and human nature. Mainly based on the poem Do not Go Gentle into the Good Night and the sampling of the Koshi wind chimes, the work showing its musicality through a number of sound processing techniques, and using electronic music language to show a thinking of sound texture in composition. The planet of human survival has developed into a global village of "community of destin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ild universe, the composer tries to express the indomitable resistance and cherish attitude of life in the face of the crisis. We, as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should maintain a kind of awe and reflection on the global village on which we live.

05 _____
니콜라스 샤히드 Nicholas Shaheed
"Wire Spill" for kalimba and
2-ch live-electronics

이 작품은 칼림바를 이용하여 칼림바의 소리를 뒤바꾸고, 왜곡하고, 변화시켜 일련의 풍경으로 만들어낸다. 칼림바, 전자음향 및 영상을 위해 작성된 이곡에는 음고와 노이즈, 입자와 선, 전진 및 후진과 같은 대비들로 가득차있다.

Written for kalimba, electronics, and visuals, Wire Spill is imbued with contrasts: pitch and noise, particles and lines, forward and backward motion.

06 _____
박재영 Elsa Jaeyoung Park
"Encroaching" for 6-ch tape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우리를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다." - 마크 트웨인 '인크로칭'은 음향 환경과 2019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4계절동안 얻은 해양 데이터로 이루어진 곡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경험을 다룬 작품이다. 바다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작년 해운대 바닷가에서 한 녹음으로부터 먼저 만들어졌다. 파도소리, 즐거운 사람들 소리, 길가 오토바이 소리 같은 소리가 포착되었다. 그 후, 기후 변화에 대한 한 영화를 보고 나는 환경의 실제 현실을 모른 채 단순히 바다를 즐기던 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 작품에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해운대 바닷가의 해양학적 관찰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러한 수치상의 데이터는 슈퍼콜라이더를 통해 음악 데이터로 변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생성한 해양 데이터와 바다가 가져다준 가공되지 않은 소리의 콜라주에 대해서 나는 경험자이자 해설자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작품에서 다양한 단계의 흔들리는 제스처는 경외감에서 문제 의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에 대한 작곡가의 변화하는 경험을 나타내는데 이는 어느 순간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크로칭은 사람들과 환경과의 연결 및 사람들과 환경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면서 자연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고 공유하도록 청취자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텔레마틱 페스티벌 지구의 날 예술 모델 2020에서 발표되었다.

"What gets us into trouble is not what we don't know. It's what we know for sure that just ain't so"-Mark Twain. 'Encroaching' is a piece that deals with an experience of unpleasant truth -

CONCERT 2

human's attitude to nature, consisting of sonic environment and marine data of four seasons of Haeundae Beach, Busan in 2019. Inspired by the beauty of the sea, the piece is firstly created from the recording of Haeundae beach last year. Such as sounds of waves, people amused and the motorbikes on the road were captured. After then, a film about climate change encouraged me to look back on the moment I simply enjoyed the sea while not know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Thus, I used oceanographic observation data of the beach from April to December in 2019 in the piece, then such numerical data were translated into musical data through Supercollider. During the process, I was in the position of experiencer and interpreter as to the collage of what computer-generated marine data and raw sound of the sea deliver. Also, the varying gradations of swaying gestures in the piece manifest composer's changing experiences towards nature from a feeling of awe to the awareness of problems and become distant from the issues at some point. Therefore, 'Encroaching' is to invite listeners to explore and share demeanours to nature, acknowledging people's connections and gaps to the environment. The piece was presented on Telematic Festival Earth Day Art Model 2020.

07 _____
박순영 Soonyoung Park
"Go(孤-鼓)!" for clarinet and
2-ch live-electronics

외로운 자아, 북처럼 두드려라.
 홀로 선 모습에서 의지가 느껴진다.

북의 첫 진동에서 움직임의 의지가 피어오르듯, 이 곡은 클라리넷의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튕겨오르듯 상

행하고 물결치듯 일렁이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장악하고자 한다. 중간부의 분절되는 짧고 빠른 음들은 북의 가락과 진동의 전자음향을 배경으로 홀로 선 자아가 발을 땅에 디디면서 아주 빠르지도 않게 그렇지만, 어떠한 흥으로 자신의 몸 구석구석으로 그 '흥'을 표현한 부분이다. 마지막에 힘차게 포효하고, 두드리고 끝이 난다. 2006년 무반주 바이올린 솔로로 쓴 작품을 2011년 한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전자음향을 더해 연주했으며, 올해 2020년 코로나 기간 희망의 메시지로 전진하고자 클라리넷과 전자음향으로 개작초연한다.

Lonely self, knock like a drum.
 From a looks of standing alone, it feels strong will.

As if the will of movement rises from the drum's first vibration, this piece starts with the low G of the clarinet, ascends like a quick bounce, and tries to take over the space with a wavering motion. The short and fast notes that are segmented in the middle section are not very fast as the ego, standing alon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hythm of the drum and the electro-acoustics of vibration, stepped on the ground, but with some excitement, he expressed the joy, 'heung', in every corner of his body. At the end, it roars vigorously, knocks, and ends. The work written as a solo violin in 2006 was played with electro-acoustic additions at the concert hall of Hanyang University in 2011, and the adaptation premiere with clarinet and electro-acoustic to advance with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coronavirus in 2020.

08

나오토 이와키 Naoto Iwaki
"the wave" for 2-ch tape

이 곡의 사운드 소재는 오직 모듈러 신디사이저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듣고, 보고, 냄새를 맡으며 파동의 정보를 얻으면서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렉트로닉 파동은 날카롭고, 차갑고, 혹은 그렇게 비슷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작품에서 일렉트로닉 파동을 따뜻하게, 그리고 유기적 움직임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알고 싶었다.

The sound material is only from modular synthesizer in this song. We live with getting information of wave as hearing, seeing, smelling.... Commonly we imagine the electronic wave is sharp, cold, or like that. In this composition I wanted to express that "however electronic wave can be expressed warmly and organic motion."

09

션 핼로웰 Sean Hallowell
"Uneven Turns" for 8-ch audiovisual

가시광선으로 우리의 하늘을 채우는 물질과 에너지 너머로 우리는 미약한 에너지 신호, 즉 우주배경 복사를 감지한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광선 내에서 우리는 작은 변동을 감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배경복사에 "이방성 (고대 그리스어 anisos(불균등한)과 tropos(돌리기)에서 유래)"이 있다고 한다. 태고의 특이성 속에서 나타난 양자 지터의 산물인 이러한 미세 변동은 지난 140억년 동안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거시적 구조(행성, 별, 은하 등등) 속으로의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해왔다.

Beyond all the matter and energy that fills our sky with visible radiation, we detect a faint energy signature –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Within this all-encompassing

radiation, we detect small fluctuations. We therefore refer to the CMB as "anisotropic" (from the Ancient Greek anisos, "uneven" and tropos, "turn"). The products of quantum jitter in the primordial singularity, over the past 14 billion years, these microscopic fluctuations have evolved via gravitational interaction into the macroscopic structures (planets, stars, galaxies, etc.) we observe today.

10

폴 웰러스 Paul Oehlers
"Flux Hammer" for 2-ch tape

피아노에서 얻은 소리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는 <플럭스 해머>는 물리적으로 개조된 피아노 현에서 나는 소리를 활용한다. 소스 샘플은 전자장치를 쓰지 않고 어쿠스틱하게 준비되었고 컨볼루션, 공명 필터링, 그레놀러 합성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걸쳐 조작되었다.

An exploration of sounds derived from a piano, Flux Hammer employs sounds of physically altered piano strings. Source samples were prepared acoustically and manipulated through various processes, such as convolution, resonance filtering, and granular synthesis.

11

김태희 Taehi Kim
"Breath" for clarinet and 8-ch live-electronics

숨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한 몸 속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숨은 곧 삶의 원천이자 생명이다. 그런데 최근 이 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숨이 다른 생명체를 공격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 작품은 이러한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결되어 숨이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도록 염원을 담았다.

Breath is the process that a living creature inhales oxygen and exhales carbon dioxide from the body. Breath is the source life, and that is the life itself. However, recently this breath is threatened by coronavirus. Rather, it became ironically a threat that could attack other lives. This work expresses these processes, and contains the hope that the breath would recover its original purpose and meaning as the Covid-19 ends quickly.

CONCERT 3

2020년 10월 30일(금) 오후 7:3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Friday, October 30, 2020, 7:30pm, Jayu Theater at the Seoul Arts Center

01 리오나 쿠오 Liona Kuo
"Untitled: Sigh" for flute and 2-ch live-electronics
flute : 김유경 Youkyung Kim

02 첸, 슈-후앙 Shu-Huang Chen
"Sonic Youth" for 2-ch tape

03 클로비스 맥이보이 Clovis McEvoy
"Pillars of Introspection" for 4-ch audiovisual

04 신성아 Sungah Shin
"Looping Movements v. 4" for 2-ch audiovisual

05 더글라스 헤드윅 Douglas Hedwig
"TransSonic Awakenings in D" for 2-ch tape

06 미셸 첸 Michele Cheng
"Doyennes' Diaries" for 2-ch live electronics

07 마르코 시칠리아니 Marko Ciciliani
"Gunned Down(with spoiler)" for 8-ch audiovisual

08 호르에 가르시아 델 발레 멘데스 Jorge García del Valle Méndez
"Ten Steps (십리)"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piano : 손은영 Eun-young Son

09 김지현 Jihyun Kim
"Differences" for flute, piano and 4-ch tape
piano : 김아름 Areum Kim
flute : 이은미 Eunme Lee

CONCERT 3

01

리오나 쿠오 Liona Kuo
"Untitled: Sigh" for flute and 2-ch live-electronics

<언타이틀드: 사이>는 플루트 독주와 일렉트로닉스를 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피치 중심성 D에 둘러싸여 있다가 C 샤프 피치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한숨의 움직임 같은 느낌을 모방하기위한 것이다. 작품 전체에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이 흐른다. 일렉트로닉스의 주요 디자인은 플루트 연주자와 연주자의 악기 사이에 상호적 작용으로부터 나는 소리에 영감을 받은 공기 소음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나는 플루트 같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시뮬레이션 하고자 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사이의 더블 플루트 연주 속에서 추상 감각을 만들어 냈다.

<Untitled: Sigh> is a piece for flute solo and Electronics. This piece is surrounded by its pitch centricity D and slide down to the pitch of C sharp which I would like to imitate the feeling like the movement of sigh. Flowing in the whole piece in the breath of in and out. The main design of the Electronics based on the elements of air-noise which was inspired by the sounds come from the playing interactive between flutist and her/his instrument. I attempt to simulate a flute-like electronic sounds, created a sense of abstraction in the double flute performance between nothingness.

02

첸, 슈-후앙 Shu-Huang Chen
"Sonic Youth " for 2-ch tape

이 작품은 주요 소재인 일렉트릭 베이스 소리라는 음원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하는 젊음과 시끄럽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부끄러워하는 모든 젊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소닉 유스"라는 제목은 10대라는 위치에 재등장하려고 하고 시간은 흘러간다.

This piece comes from the sound source of electric bass sound as the main material, To commemorating the youth of playing electric bass ,and all Noisy, restless, shy youth. The title "Sonic Youth" trying to reappear teen status ,and Time goes by.

03

클로비스 맥이보이 Clovis McEvoy
"Pillars of Introspection" for 4-ch audiovisual

이곡은 가상 음악이라는 새로 대두하고 있는 미디어를 위해 작품이다. 실감형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힘, 즉 무력함과 대리인에 대한 자아 성찰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침투적 사고 및 강박적 욕구에 모양과 형태가 주어지고, 원초적 감정 및 소리와 색채의 격렬한 표현은 춤추고 위협한다. 바로 환경 그 자체가 직면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힘의 균형이 치명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성장, 자율권,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는 온다. 호기심, 직관, 그리고 놀이와 같은 탐색을 통해 세상을 개조하는 것은 우리 내면과 경험 내부에 새롭고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Pillars of Introspection is a ground-breaking work written for the emerging medium of virtual music. An immersive, interactive audiovisual experience, the piece is anchored around a self-reflective examination of power; of helplessness and agency. Intrusive thoughts and compulsive desires are given shape and form, immense billows of raw emotion and tumultuous expressions of sound and colour dance and menace - the very environment itself becoming a confronting mirror. Yet as the balance of power may at times seem fatally tilted, and one's relation to the world seem set, there come new

CONCERT 3

opportunities for growth, empowerment and peace. Reshaping the world through curiosity, intuition and playful exploration opens a pathway to create a new, harmonious space within oneself and within the experience.

04

신성아 Sunga Shin

"Looping Movements v. 4" for 2-ch audiovisual

The Thin Line Project는 2007년에 시작된 정형화된 형식과 예술의 목적성을 열어놓고 실험영화 장은주와 같이 진행해왔다. 실험영화는 상업영화와는 별개로 특유의 영상미로 영화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독보적인 매체로, 컴퓨터 음악과 결합되면서 예술적 상상력의 자유를 더하고 예술적 실험에 유용한 미디어로 사용된다. Looping Movements v. 4 반복적인 음악적 패세지와 영상에서의 움직임들을 집중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하여 영상적인 반복에 반한 음악적인 흐름들을 시도한다.

영상:

2015년부터 함부르크 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실험영화감독 장은주는 2007년 16mm 첫 단편 '밀물'을 시작으로 필름메이커로서의 이력을 시작했다. '밀물 (2007)'은 로테르담국제 영화제, 일본 이미지포럼, 지호라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 독립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필름 매체에 대한 관심과 실험을 담은 '교미기' 연작으로 2009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코닥상'을 수상하였고,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기획한 '한국실험영화작가전'에 소개되며 실험영화감독으로서의 이력을 확고히 하게된다. 2010년 디지털 매체로 확장하여 완성한 '안과밖(2010)'은 줌인과 줌아웃이란 단 두 쇼트로 구성된 작품으로 필름이 아닌 디지털이 가진 매체적 특성으로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작품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인디포럼,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경쟁작으로 상영되었다. '보이는 영화 (2013)', '몸과 마음(2015)', '사냥의 밤 (2017)'은 제43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열혈스테프상'과 2018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특별언급 상'을 수상

하였다. 사운드 아티스트 신성아의 다원예술 프로젝트인 'Thin Line Project'의 소속작가로 협업을 통한 전시 및 공연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신시>를 제작하고 있는데, <신시>는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앤캐치'에서 '진진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울주서밋'과 '2019 인천배경저예산영화제작지원' 최종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The Thin Line Project is an experimental film that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07 with Eunju Jang. It features an open finality of art as well as a standardized form. The experimental film is a matchless media form that differs from commercial movies, because it continues cinematic experiments with its unique visual beauty. Freedom in artistic imagination increases when it is combined with computer music, and it is used as a useful medium for artistic experiments. Looping Movements v. 4 focuses on the repetitive musical passages and movements in the video and attempts to create a musical flow that resists visual repetition.

Video:

Eunju Jang is an experimental film director who is studying film at HFBK University of Fine Arts, Hamburg, since 2015. She started her career as a filmmaker with her first 16mm short film, "Tide." "Tide" (2007) was presented at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Japanese Image Forum Festival, Ji.hlav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She was awarded a Kodak Award for her series "The Mating Season," and was also awarded for the attention she has brought as well as her experiments in film media at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he was introduced at the Korea Experimental Film Director Exhibition organized by the Nam June

CONCERT 3

Paik Art Center, and established her career as an experimental film director. Her work, "In/Out" (2010), is completed by expanding into digital media because it is composed of only two shots: zoom-in and zoom-out. With its peculiar medium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stead of film, it poses the question "What is a movie?" It was presented and nominated at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die Forum, and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er films are "Visible Cinema" (2013), "Body & Soul" (2015), and "The Hunting Night" (2017), which was awarded the Passionate Staff Award at the 43rd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the Special Jury Mentions Award in the 2018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She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xhibition and performance collaboration as an affiliated artist of the Thin Line Project, an interdisciplinary art project organized by a sound artist, Sunga Shin. In 2019, she worked on her first documentary film, "Sinsi," which was awarded a Jinjin Award at the 20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Pitch & Catch," and was nominated as a finalist at the 2018 Ulju Summit and the 2019 Incheon-featuring Low-Budget Film Production Support.

05

더글라스 헤드윅 Douglas Hedwig

"TransSonic Awakenings in D" for 2-ch tape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단파 라디오 방송이 라디오와 안테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세계의 소리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었다. <트랜스소닉 어웨이크닝스 D조>는 세션으로 이루어진 고정 미디어 일렉트로닉 작품으로, 전세계 라디오 방송 및 오디오 전송과 연관된 매력적이면서도 종종 미스터리한 소리와 다양한 언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 졌다. 수신기에서의 디지털 튜닝 전에 라디오 주파

수의 수동 튜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섹션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음조의 파동이라는 바탕 위로 튜닝 소리의 파스티세를 듣게 된다. 중간 섹션에서는 라디오 아르헨티나에서 전세계로 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콜 사인으로서 보통 예정된 단파 방송 사이클의 시작과 끝지점에 음성이나 음악으로 나타냈던 콜 사인의 조각 조각들을 들을 수 있다. 작품은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중세 교회 종소리로 마무리된다.

Before the advent of the Internet, short-wave radio broadcasts brought sounds and ideas from around the world to anyone with a radio and antennae. "TranSonic Awakenings in D" is a fixed-media electronic composition in three sections, inspired by the fascinating, and often mysterious sounds and diverse languages associated with short-wave radio broadcasts and audio transmissions from around the globe. Before digital tuning in receivers, manual tuning of radio frequencies was necessary. So, interspersed throughout this section we hear a pastiche of tuning sounds over a bed of tonal pulsation. In the middle section we hear fragments of both spoken and musical radio "call-signs," typically used at the start and end of scheduled shortwave broadcast cycles, for worldwide transmission from Radio Argentina. The work concludes with the sound of Medieval church bells from central Italy.

CONCERT 3

06

미셸 청 Michele Cheng

"Doyennes' Diaries" for 2-ch live electronics

인정받는 4명의 여성 예술가의 친밀한 관점을 통해 <도이엔즈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지 않는 현대 여성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본다.

Doyennes' Diaries, through intimate perspective of four women-identified artists, the project peeks into the everyday life of modern women that we don't usually see on the media.

07

마르코 시칠리아니 Marko Ciciliani

"Gunned Down(with spoiler)"

for 8-ch audiovisual

이 작품은 아이슬란드 아티스트 라그나르 카르탄슨의 "Tod einer Dame" 공연에 대한 논평으로서 만들어졌고, 라그나르 카르탄슨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총 맞은 여인을 무대에 올린다. 여성이 정확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이미지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몇 시간동안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연기자에 의해 라이브로 공연된다.

나는 한 전시회에서 연기자들이 서로 교대할 때의 순간을 포착하게 되었다. 내가 만든 오디오비주얼 작품은 진정성을 무대에 올리는 것에 대한 나의 논평으로서 의도된 것인데 나는 그것이 카르탄슨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This work has been created as a commentary on the performance "Tod einer Dame" by the Icelandic artist Ragnar Kjartansson, who stages a lady in an evening dress who has been shot. This image, a reference to many movies where women have been displayed in exactly this way, is enacted live in museums and galleries, by performers who lie immobile for several hours.

I happened to catch the moment in an exhibition when performers switched shifts. The audiovisual work that I created is meant a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staging of authenticity as I see it as characteristic of Kjartansson's work.

08

호르에 가르시아 델 발레 멘데스

Jorge García del Valle Méndez

"Ten Steps (십리)"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이 곡은 한국 노래 "아리랑"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변주곡"이라는 제목은 이 단어나 나타내는 전통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주는 느낌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의미한다. 피아노는 그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이끌고 통제하는 환경에서의 유일한 길잡이이다. "열 발자국 후에..." 피아노와 일렉트로닉스는 하나의 요소로 녹아든다. 함께일 때 이 둘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 작품의 음향 구조는 아리랑의 음조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다. 일렉트로닉 파트의 소재는 전통 한국 음악에서 추출한 소리, 피아노 소리, 순수하게 합성된 소리 등등 다양한 원천에서 나온다. 이들 소재는 여러가지 변형과정을 거쳐 끝에는 하나의 유동적인 소리로 엮인다. 파노라마는 이 작품의 설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공간은 소리의 높이나 리듬과 같은 정도로 구성된 요소이다. 그 어떤 움직임도 움직임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인식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열 발자국은 열 개의 공간이다.

Ten Steps is a work inspired by the Korean song "Arirang". The name "variation" refers more to a free interpretation of the sensations that the song inspires than to the classic concept that this word evokes. The piano is a solitary walker in an environment that, more than interacting, directs and controls him. "after ten steps..." the piano and electronics dissolve into a single element. Together, they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he sound structure of this work is based on the

CONCERT 3

tonal material of the song Arirang. The material for the electronic part comes from various sources: sounds extracted from traditional Korean music, piano sounds, purely synthetic sounds... The material has been worked through various transformations and at the end compiled in a fluid sound. The panorama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sign of the work. The space is an element that is composed in the same degree as the sound pitch or the rhythm. No movement takes place without the perception of the space around it. Ten steps are ten spaces.

SICMF 2020. The idea of this piece is a result of a variety of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objects.

The result of vertical differences of each type of sound played on each layer of sound is very simple and similar, from subtle differences, such as different accents and articulations, in repetitive parts of one note, and playing contradictory elements together. It was different and approached as having a big difference. From small differences, I hope listener can hea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distinct differences.

09

김지현 Jihyun Kim

"Differences" for flute, piano and 4-ch tape

"Differences" 는 원래 Flute, Piano와 전자음악을 위한 곡으로 계획되었으나 실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9년 11월 Flute과 Piano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여 Ensemble Between의 첫 번째 연주회에서 연주되었다. SICMF에서 처음의 계획대로 Flute, Piano와 전자음악을 위한 곡으로 들게 되길 바란다. 곡의 아이디어는 구별된 다른 객체 사이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결과이다. 한 음으로 반복되는 부분에서 각각 다른 accent와 articulation 등 미세한 차이에서부터 서로 상반된 요소를 함께 연주하는 등의 극심한 차이, 각 소리의 층에서 연주하는 각각의 음형의 수직적 조합의 결과 또한 매우 단순하며 비슷한 것, 전혀 다르며 큰 차이를 가진 것으로 접근하였다. 작은 차이로부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내는 선명한 특징들을 들으며 느끼게 되길 바란다.

"Differences" was originally planned for songs for Flute, Piano and electronic music, but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it was composed for Flute and Piano in November 2019 and performed at the first concert of Ensemble Between. I hope it would be performed for Flute, Piano and Electronic Music as originally planned in

CONCERT 4

2020년 10월 31일(토) 오후 7:30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Saturday, October 31, 2020, 7:30pm, Jayu Theater at the Seoul Arts Center

01 강중훈 Joong-Hoon Kang "A Summer Day"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piano : 홍인경 InKyung Hong

02 히로무 타카노 Hiromu Takano "Another Room" for 8-ch tape

03 양민석 Minsuk Yang "Eccentric Vibe"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piano : 홍인경 InKyung Hong

04 클레멘스 본 로스너 Clemens von Reusner "KRIT" for 8-ch tape

05 주앙 페드로 올리베이라 João Pedro Oliveira "Dark Energy" for contra bass, cello and live-electronics
cello : 진민수 Minsu Jin

06 톰 윌리엄스 Tom Williams "Pakefield - on the Edge" for 8-ch tape

07 프리다 아브탄 Freida Abton "My Heart is a River" for 2-ch audio visual

08 로저 다넨버그 Roger Dannenberg "Critical point for cello and computer" for cello and live-electronics
cello : 이나래 Narae Lee

CONCERT 4

01 강중훈 Joong-Hoon Kang "A Summer Day"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푸르른 나뭇잎, 풀벌레 소리, 온몸을 휘감는 끈적한 바람 그리고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시간이 멈춘 듯 눈앞에 마주친 어느 여름날의 풍경을 피아노와 전자음향으로 그려보았다.

The green leaves, the sounds of insects, the hot and humid breeze around my body, and the rain pouring violently... With piano and computer-generated sound, I depicted the scenery of a summer day came into my eyes as if time stopped.

02 히로무 타카노 Hiromu Takano "Another Room" for 8-ch tape

<어나더 룸>은 2020년에 작곡된 8 채널 고정 미디어 곡이다. 이 작품은 시간과 공간 사이의 상호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움직임"이 있다. 하나는 전체 공간속에서 음색의 반복이나 변화 같은 음악의 요소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시간(음악)을 펼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속도감을 수반하는 음악의 복잡한 시간적 측면에 연계됨으로써 공간 그 자체를 변형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작곡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변형을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체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 그 자체로서 음악 작품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Another Room" is an 8-channel fixed media composed in 2020. This work focuses on the mutual movements between time and space. There are two types of "movement". One is "unfolding the time (music) to the space" of expressing the elements of music like repetitions

or changes of timbre in the whole space. Another is "metamorphosis of the space itself" by being involved in complexed temporal aspects of music accompanied by various sense of speed. In this work, It is attempted to actualize variations of the time and space by these movements influenced each other. And it is also an attempt to show the musical composition as the movement itself of the whole time and space.

03 양민석 Minsuk Yang "Eccentric Vibe" for piano and 2-ch live-electronics

"Eccentric Vibe"은 피아노와 전자음악을 위한 곡으로, C1 의 상위 배음열을 기초로 작곡된 음형들을 샘플링 하거나 컴퓨터에서 이들을 재합성 하는 등 다양한 처리들을 통하여 작품을 구성했다. 곳곳에 등장하는 리드미컬한 진행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음색들과의 어쿠스틱 피아노 본연의 음색과의 간극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Eccentric Vibe," for Piano and Electronics, 2 channels (2020)
Eccentric Vibe for Piano and Electronics is a piece for piano and electronic music composed of a sampling of sounds based on a superordinated harmonic series of C1 or resynthesizing them on a computer. The rhythmical process plays as a connecting medium between artificial sound from the speaker and the original acoustic piano sound.

CONCERT 4

04

클레멘스 본 로스너 Clemens von Reusner "KRIT" for 8-ch tape

산스크리트어로 KRIT은 "조각으로 자르다", "분열시키다", "실을 잣다,"라는 뜻이지만 또한 "연주하다", "공연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달성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개념 모두 음향을 이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나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느껴졌다. KRIT의 기반은 다양한 변주로 잘리고 분열되는 혼란스러운 기본 음향이며 이는 새로운 음향 제스처와 질감으로 모아진다. 이 곡이 연주되는 동안 이 기본 음향은 혼란스럽고도 일관된 상태로 발전된다. 점 특성이나 면 특성이 나타나고 이들 특성은 서로 다른 등급의 밀도와 공간화에서 들린다.

In Sanskrit language, KRIT means "to cut into pieces", "to split", "to spin a thread", but also "to play", and "to accomplish something by performing". Both notions of the word appear to me always essential and important in working with sounds. The foundation of KRIT is a chaotic basic sound which gets cut and split into many variations and assembled into new sound gestures and textures. During the course of the composition the basic sound is developed into chaotic as well as consistent states. Point or plane qualities emerge and are heard in different grades of density and spatialisation.

05

주앙 페드로 올리베이라 João Pedro Oliveira "Dark Energy" for contra bass, cello and live-electronics

천문학과 물리 우주론에서 다크 에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최초의 빅뱅에서부터 무한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면서 우주 공간 전체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되는 에너지이다. <다크 에너지>는 어둡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이 되고자 했다. 이 작품은 콘트라첼로 듀오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 졌다.

In astronomy and physical cosmology, dark energy is a form of energy still unknown and believed to fill the entire space of the universe, causing the acceleration of its expansion, from the initial Big Bang to the infinite future. Dark Energy aims to be a dark and energetic work. This piece was commissioned by the Contracello Duo.

06

톰 윌리엄스 Tom Williams "Pakefield - on the Edge" for 8-ch tape

여름, 한 작은 해안가 마을에의 기분 좋은 저녁이다. 이 마을은 잉글랜드 가장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모래해안과 해변로가 있다. 근처에는 노르만 양식의 교회, 마을 공터, 마을 술집, 그리고 피시앤드칩스 가게가 있다. 사람들은 바다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저녁의 마지막 햇살을 즐기고 있는데, 걷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 친숙한 풍경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들은 놀고, 교회 종소리와 자전거 벨소리가 울리며 소란스러운 갈매기가 짹짹거린다. 따뜻하고 유쾌한 장소로, 이곳은 휴양지 마을이다.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즉 귀를 위한 영화가 풍부한 소리의 세계이다. 이 작품은 예상치 않은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음악적 담화를 밝혀 내며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음악적 공명을 찾기 위해 청각

CONCERT 4

적 장면을 탐험하고 소리로 활용하는 일렉트로닉 어쿠스틱 음악 작품이다. 작품을 위한 모든 원천 녹음은 어떤 여름 날 하루 저녁에 녹음되었다.

It is summertime on a warm evening in a small seaside town on the edge of England where people are taking in the air. There is a sandy beach and a coastal path and nearby there is a Norman church, a village green and village pub, and the ubiquitous fish and chip shop. People are relaxing, enjoying the last rays of evening light: walking, biking, or sitting on park benches looking out to sea; people are chatting as they stroll, and children playing, church bells and bike bells ring-out, and noisy gulls screech overhead. It's a gentile, convivial place – a holiday town. And, it is a sound-world that is rich in sonic imagery – a cinema for the ears.

This is an electroacoustic music composition that explores and sonically exploits an audio tableau to find new meanings, new musical resonances, uncovering a musical discourse that suggests unexpected narratives. All the source recordings for the work were made on a single, summer evening.

07

프리다 아브탄 Freida Abtan "My Heart is a River" for 2-ch audio visual i) Opening out, ii) Seeping in, In memory of Nessim and Raphael Abtan

<마이 하트 이즈 어 리버>는 비디오, 라이브 첼로, 세스 우즈를 위해 프리다 아브탄이 작곡한 미리 프로세스된 음악 반주를 위한 작품이다. 내러티브 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꿈과 이민 과정속에 무너지는 정체성 사이의 경계를 찾아내 간다. 첼로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고 그의 악기에서 꿈이 드러난다. 이러한 꿈속에서 그는 친구에게 건배를 하

고 둘은 함께 모험을 계획한다. 보트를 타듯이 첼로를 타고 거센 물살을 향해한 후, 두 친구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곳은 별로 가득 찬 공간으로, 그들의 몸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비친 움직임을 흉내낸다.

<마이 하트 이즈 어 리버>는 첼로 소리를 몰이나 물수제비 뜨기 같은 물리적인 소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펙트럴 프로세싱을 사용한다. 공연에서 우즈는 미리 녹음된 오디오 및 비주얼 반주에 완벽히 맞추어 연주한다. 비디오는 그 자신과 탐진 오가로, 두 사람의 물리적 공연을 보여주며 그의 몸을 비디오의 묘사된 내러티브 안에 위치시킨다. 이 작품은 2020년 시즌을 위해 시애틀 심포니의 의뢰를 받은 작품으로, 옥타브 9 서라운드 오디오비주얼 콘서트 홀에서 초연되었다. 옥타브 9 공연을 위해 80 채널 어쿠스틱 디퓨전 시스템과 확장된 마술 쇼 배치형태로 배치된 10개의 영사 스크린을 사용하여 음향과 비디오 둘 다로 관객을 둘러쌌다. 이 프로덕션의 실감 미디어 연출은 각 공연장의 서로 다른 영사 능력에 따라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 작품을 위한 오디오 및 비주얼 소재는 세스 우즈와 프리다 아브탄이 시행한 물리적 즉흥극 및 음악적 즉흥연주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들 워크숍에서 얻은 녹음은 프리다 아브탄이 프로세스하고 조작할 원자료가 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일렉트로닉 음악은 세스 우즈가 라이브로 연주할 수 있도록 다시 편곡되었는데, 이는 그의 연주가 이미 특색으로 하고 있는 음악적 랜드스케이프 속에 내포되어 있다.

My Heart is a River is a piece for video, live cello and pre-processed musical accompaniment written for Seth Woods by Freida Abtan. Narratively, the piece traces the borders between dreams and identity that collapse within the process of immigration. A cello player begins to perform, and dreams emerge from his instrument. In these, he toasts a friend and together they plan an adventure. After sailing through rough waters riding the cello like a boat, the two friends reach their destination: a star filled expanse where their bodies mirror movement against an invisible barrier. The music for My Heart is a River uses spectral processing to transform the sounds of the

CONCERT 4

cello into physical materials such as water and skipping rocks. In performance, Woods plays in tight synchronization with the pre-recorded audio and visual accompaniment. The video features physical performance by both himself and Tamzin O'Garro and situates his body within its depicted narrative.

The piece was a commission from the Seattle Symphony for its 2020 season, where it premiered in the Octave 9 surround audiovisual concert hall. For the Octave 9 performance, both the sound and video surrounded the audience using an eighty-channel acoustic diffusion system as well as ten projection screens placed in an extended horseshow configuration. The production's immersive media choreography must be tailored according to the differing projection capabilities of each performance venue.

The audio and visual material for the piece was created through physical and musical improvisation workshops conducted between Seth Woods and Freida Abtan. Recordings from those workshops became the source material for Freida Abtan to process and manipulate and the resulting electronic music was then scored back for Seth Woods to play live, embedded within a musical landscape in which his playing already features.

08

로저 다넨버그 Roger Dannenberg

"Critical point for cello and computer" for cello and live-electronics

크리티컬 포인트는 솔로 첼로 및 네 개의 사운드 시스템과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갖춘 인터랙티브 컴퓨터 음악 시스템을 위해 작곡되었다. 첼로 연주자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고, 컴퓨터는 첼로 소리를 녹음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킨다. 그래픽과 비디오도 영사된다.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래픽은 라이브 첼로 연주자가 내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티스트인 롭 피셔를 기념하며 작곡되었다. 애니메이션은 이 특정한 곡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곡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는 토마스 로렌조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필요사항: 첼로 연주자. 이상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이 첼로 연주자와 무대 부분에 영사되어야 한다. 스크린은 필요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오버헤드 스크린보다 선호된다. 영사의 조절 가능한 타원형의 블랙아웃은 영사된 빛으로부터 연주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영사기로 가는 비디오 피드는 비디오와 4 채널 오디오를 생성하고 있는 작곡가의 노트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첼로로부터 작곡가의 노트북까지의 마이크 인풋도 필요하다.

Critical Point is written for solo cello and interactive computer music system with four channel sound system and computer animation. The cellist plays from a score, and the computer records and transforms the cello sounds in various ways. Graphics and video are also projected. The computer-generated graphics are affected by audio from the live cellist. Critical Point is written in memory of the artist Rob Fisher. The animation was created for and interacts with this particular composition. It is a collaboration with Tomas Lorenzo. Requirements: cellist. Ideally, animation should be projected onto the cellist and the stage area – no screen is necessary, and this is preferred to an overhead screen. A adjustable black-out oval in the projection is implemented to shield the player's eyes from projected light. The video feed

CONCERT 4

to the projector must come from the composer's laptop which is generating both the video and the 4-channel audio. Microphone input is needed from the cello to the composer's laptop as well.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S ANNUAL CONFERENCE 2020

Conference Room F8, Cosmos Music Corporation

2020 10.30 Friday	10:20-10:25	박케빈 Kevin Parks Conference Chair	학회의장의 개회인사 Opening Greetings
	10:30-11:30	로저 다넨베르그 Roger Dannenberg Carnegie Mellon University	[Keynote Speech] 컴퓨터로 음악만들기의 어떤 역사와 미래 Some Histories and Futures of Making Music with Computers
	11:35-12:05	마이클 루카스주크 Michael Lukaszuk University of Cincinnati	루카-추크: 추크를 기반으로 한 글리치 오디오 작곡 환경 Luka-chuck: a chuck-based Glitch Audio Composition Environment
	12:10-12:40	이안 에반스 거트리 Ian Evans Guthrie Florida State University	조직화된 사운드와 추상적인 음악 서술의 이해 Understanding Organized Sound and Abstract Musical Narratives
	12:45-13:45	Lunch Break	
	13:50-14:20	헤이든 패트릭 맥고완 Hayden Patrick McGowan University of Ottawa	배리 트루크의 "리버런"에 나타난 목적론과 통합성 Teleology and Unity in Barry Truax's Riverrun
	14:25-14:55	키티판 안부알라 Kittiphan Janbuala Seoul National University	음향데이터화를 통해 이모티콘을 듣다 Listen to Emojis through Sonification
2020 10.31 Saturday	15:00-15:30	마르코 시실리아니 Marko Ciciliani Institute of Electronic Music and Acoustics	상호작용하는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시청각적 연주 Audiovisual Performances with interactive virtual 3D Environments
	10:30-12:30	호르헤 사스트레 외 Jorge Sastre et al.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ència Video: Stefano Scaran Audio: Pedro Astasio	[Workshop]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Soundcool로 합동 창작하기 Collaborative Creation with Soundcool for Socially Distanced Education 준비물 (가능하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Soundcool 설치 Be prepared with, if any, a Laptop or Smartphone, Soundcool installed
	12:35-13:35	Lunch Break	
	13:40-14:10	니코 쉐러 Nico Schüller Texas State University	오토 라스케와 전자음향 음악의 시각화 Otto Laske and the Visualization of Electro-Acoustic Music
	14:15-14:45	마크 에반스타인 Marc Evanstei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다른 규모에서의 음악적 모션 : 음악적 윤곽선 스펙트럼의 창조적인 분석과 재합성 Musical Motion at Different Scales: Creative Analysis and Resynthesis of Musical Contour Spectra
	14:50-15:20	셉티안 드위 카호 Septian Dwi Cahyo Indonesian Institute of the Arts Yogyakarta	도니 카르사디의 멀티미디어작 "내 어리석은 두뇌가 싫다"의 다중매체적 분석 Multimedia Analysis in Donny Karsadi's Multimedia Piece I Hate My Stupid Brain
	15:25-15:55	바르바라 뢰네부르크 Barbara Lüneburg Anton Bruckner Private University Linz	예술과 게임 사이: GAPPP에서 시청각적 연주 게임 실행하기 Between Art and Game: Gamified Audiovisual Performance Practice in GA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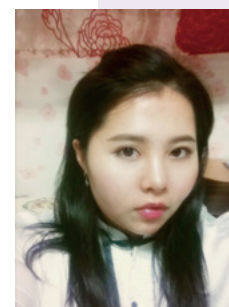
COMPOSERS



이준호 Junho LEE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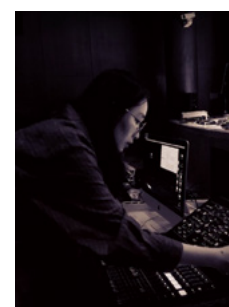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Musical Arts, School of Korean Arts, College of Arts).



이지선 Jiseon Lee

인천예술고등학교 및 추계예술대학교 졸업하였으며, 임승혁 교수를 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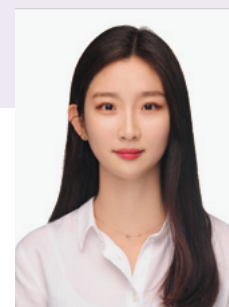
Graduated from Incheon Art High School and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studied under the advisor Professor Seunghyuk Lim.



김수진 Sujin Kim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컴퓨터음악작곡을 공부하고 있다. ICMC 2020과 NYCEMF 2020에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소리화(Data Sonification)와 관객참여형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작곡활동에 관심이 있다.

Currently studying Computer Music Composition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pieces were selected for the ICMC 2020 and NYCEMF 2020. Her areas of study include data sonification and interactive music composition that incites audience participation.



이본 Bon LEE

추계예술대학 작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Currently is a senior attending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chool of Music Composition).

COMPOSERS



임다운 Daun Lim

센조쿠학원음악대학(洗足学園音楽大学) 음악학부 음악·음향디자인과에서 1학년 재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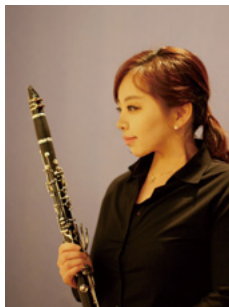
Currently is a freshman attending Senzoku Gakuen College of Music (Music Design Course, Department of Music) in Japan.



정경희 Kyunghee JUNG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였다.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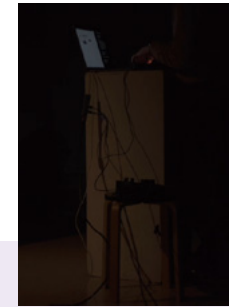


김숙영 Sookyoung KIM

2004 한미콩쿨 클라리넷 부문 동상과 2005 한미콩쿨 클라리넷 부문 은상, 2016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 클라리넷 앙상블 은상, (사)한국예술문화 단체 총연합회 양평 예술대상 신진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2019부터 현재까지 (사)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및 양평지부 이사로 활동한다.

Awarded a Bronze Medal for the Clarinet Section in the 2004 Korean-American Music Association Concours; a Silver Medal for the Clarinet Section in the 2005 Korean-American Music Association Concours; a Silver Medal for the Clarinet Ensemble Section in the 2016 Korea International Wind Band Festival; and the Rising Artist Award at the Yangpyeong Arts Awards by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She is currently serving as a director of the Yangpyeong Branch (Gyeonggi Province) of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COMPOSERS



공재이(최재원) Jae Kong (Jaewon CHOI)

음악가이자 다원예술 작가로 소수자 억압, 인간 소외 등 동시대 사회 속의 다양한 작용과 반작용을 조명하는 작업을 지향한다.

As a musician and interdisciplinary artist, the artist aims to highlight various actions and reactions, such as the oppression of minorities and human alien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몬테 테일러 Monte Taylor

몬테 테일러(1991년 출생)은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그리고 즉흥 연주자이다. 그의 작품은 호주 퍼커션 개더링, 샬롯 뉴 뮤직 페스티벌, 일렉트릭 라텍스 페스티벌, 일렉트로닉 뮤직 미드웨스트, 플로리다 일렉트로어쿠스틱 학생 페스티벌, 플로리다 국제 토이 피아노 페스티벌, 캔자스 시티 예술 연구소 아트사운드, 국립 학생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뉴욕시 일렉트로어쿠스틱 음악 페스티벌, SCI 지방 및 전국 학생 컨퍼런스, SEAMUS 국립 컨퍼런스, SPLICE 연구소, TUTTI 페스티벌, UTEMS 일렉트로어쿠스틱 리사이틀 시리즈 등을 비롯한 페스티벌에서 벤트 프리퀀시, 콤포지툼 뮤지카에 노바에, 프로스트 일렉트로닉 뮤직 앙상블, 패스파투 듀오, 텍사스 대학 뉴 뮤직 앙상블 등의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즉흥 연주자로서 테일러는 주로 전자 기타를 사용하고 라이브 시그널 프로세싱과 생성적 일렉트로닉스에 사용한다. 그는 브라이언 호튼, 앤 란질로티, 폴 루디, 마크 서덜랜드, 더 티핑 포인트 앙상블, 언바운드 앙상블, the UMKC JMP 앙상블과 함께 작업해 왔으며 서브트로픽스 마라톤, 마이애미 버스커페스트, 스탠포드 CCRMA 텔레콘서트, UTEMS 일렉트로어쿠스틱 리사이틀 시리즈, 국제 워크숍 스트루어 등에 특별 출연했다.

Monte Taylor (b.1991) is a composer, guitarist, and improviser based in Austin, TX. Hiss works have been performed on festivals including Australian Percussion Gathering, Charlotte New Music Festival, Electric LaTex Festival, Electronic Music Midwest, Florida Electro-Acoustic Student Festival, Florida International Toy Piano Festival, Kansas City Art Institute's ArtSounds, National Student Electronic Music Event, New York City Electroacoustic Music Festival, SCI Regional and National Student Conferences, SEAMUS National Conference, SPLICE Institute, TUTTI Festival, and UTEMS Electro-Acoustic Recital Series, by ensembles including Bent Frequency, Compositum Musicae Novae, Frost Electronic Music Ensemble, Passepartout Duo, and the University of Texas New Music Ensemble.

As an improviser, Taylor works primarily with the electric guitar, as well as live signal processing and generative electronics. He has worked with Brian Horton, Anne Lanzilotti, Paul Rudy, Mark Southerland, The Tipping Point Ensemble, Unbound Ensemble, and the UMKC IMP Ensemble, and

COMPOSERS

been featured on Subtropics Marathon, Miami Buskerfest, Stanford CCRMA Teleconcert, UTEMs Electro-Acoustic Recital Series, and International Workshop Struer.



니콜라 푸모 프라테지아니 Nicola Fumo Fratategiani

페루자에서 태어난 니콜라 푸모 프라테지아니는 루이지 노노의 작품 "인톨러란자 1960"에 대한 논문으로 볼로냐 대학 D.A.M.S(예술, 음악, 쇼 아카데미)를 최우수 졸업했다. 이후 그는 토르 베르가타 로마 대학에서 "1900년대 음악 문화"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페루자 음악원에서 "일렉트로닉 음악과 신기술"로 학사학위를 우등으로 받았으며 프로시노네 음악원(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작곡 과정)에서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해 우등으로 석사 학위와 예술 특별 표창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JCMC(한국), NYCEMF, ICMC-NYCEMF, 뉴 뮤직 마이애미 페스티벌 ISCM, 일렉트로어쿠스틱 반 댄스, WSU 일렉트로어쿠스틱미니페스트(미국), SMC(키프로스), 아템포라니아 페스티벌, 파운데이션 데스텔로스(아르헨티나), 페스티발 푸투라, 피날 프리 루솔로(프랑스), 신크레시스 페스티벌(스페인), 에비무스(독일), MUSLAB(브라질), 에코플렉스(체코), 오디오 모스틀리, BFE/RMA, 컨버전스, 노이즈폴로어 페스티벌, SOUND/IMAGE(영국), WOCMAT(대만), 디프란지오니 피렌체 멀티미디어 페스티벌, XXI, CIM 콜로키움 오브 뮤지컬 인포매틱스,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제9회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국제 FKL 심포지움, 문 인 준, 마크로 아실로 현대 미술관, 세그날리 오디오-비주얼 예술 및 공연, 프레미오 나지오날 델 아티(이탈리아) 등 다양한 전국적 페스티벌 및 국제 페스티벌에서 발표되었다.

Born in Perugia, Nicola Fumo Fratategiani graduated with highest honours from D.A.M.S. (Academy of Arts, Music and Show) at the University of Bologna, with a thesis on Luigi Nono's work "Intolleranza 1960". Later he has advanced post-graduate degree on "The musical cultures of 1900's" at the University of Rome "Tor Vergata", a bachelor's degree cum laude on "Electronic Music and New Technologies" at the Conservatory of Music of Perugia and a Master's degree cum laude and special mention for artistic merit on "Electronic Music" at the Conservatory of Music of Frosinone (course digital audiovisual composition). His works have been presented at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ICMC (South Korea), NYCEMF, ICMC-NYCEMF, New Music Miami Festival ISCM, Electroacoustic Barn Dance, WSU ElectroAcousticMiniFest (USA), SMC (Cyprus), Atemporánea Festival, Foundation Destellos (Argentina), Festival Futura, Finale Prix Russolo (France), Synchresis Festival (Spain), Evimus (Germany), MUSLAB (Brazil), Echofluxx (Czech Republic), Audio Mostly, BFE/RMA, Convergence, Noisefloor Festival, SOUND/IMAGE (United Kingdom), WOCMAT (Taiwan), Diffrazioni Firenze Multimedia Festival, XXII CIM Colloquium of Musical Informatics,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9th

COMPOSERS

International FKL symposium on soundscape, Moon in June, Macro Asilo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gnali Audio-visual arts and performance, Premio Nazionale delle Arti (Italy).



어거스틴 스피네토 Agustín Spinetto

어거스틴 스피네토는 아르헨티나 출신 음악가로, 고국에서 일렉트로닉 아트 학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도쿄 예술 대학에서 음악 및 음향 창작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다. 학부시절부터 그는 일렉트로닉 및 어쿠스틱 음악 악기를 사용했으며 음악 실험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공부를 통해 그는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즉흥 연주와 음악 프로그래밍 언어 작업을 하게 되었지만 또한 랩, 힙합, 재즈, 노이즈 록 같은 더 대중적인 음악 프로덕션 작업도 하게 되었다. 요즘 그는 도쿄에서 수구루 고토 교수의 지도하에 수학 중이며 그의 연구 주제는 소프트웨어 악기 컨트롤을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다.

그의 공연은 일렉트로어쿠스틱 음악 및 라이브 일렉트로닉스 콘서트에서 비주얼 및 플라스틱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예술 설치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망라한다. 그는 아르헨티나, 뉴욕, 도쿄의 갤러리, 대학,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 한 바 있다.

요즘 그는 작곡가로서 오디오 샘플 2D 공간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최첨단 음악 소프트웨어인 오디오스텔라와 맥스 MSP 프로그래밍 및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실험을 하고 있다.

Agustín Spinetto is an Argentinian musician, bachelor in Electronic Arts in his home country and currently doing his Master's Degree on Music and Sound Creation at the the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Since his time as undergraduate he has been working with electronic and acoustic music instruments and using new technologies for music experimentation purposes. His studies lead him to work with music improvisation with synthesizers and music programming languages, but also working with more popular music productions such us rap, hip hop, jazz and noise rock. Nowadays he is studying in Tokyo at Professor Suguru Goto department and his research theme is about new hardware interfaces for controlling software instruments. His performances cover a wide variety of styles, from Electroacoustic Music and Live Electronics concerts to Art Installations in collaboration with visual and plastic artists. He has done several live presentations at Galleries, Universities and venues in Argentina, New York and Tokyo. Nowadays, as a composer, he is experimenting with Audiostellar, a new cutting-edge music software based on audio-sample 2D space organization along with Max MSP programming and analogue synthesizers.

COMPOSERS



루 민지에 Minjie Lu

루 민지에 박사는 사천 음악원의 조교수이자,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 그룹 감독이며, 지도교수이고, ICMC의 리뷰어다. 그녀는 오레건 대학의 객원 연구원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의 연구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문화 등을 포함한 학제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4건의 지침과 번역물을 출판했고 CSSCI와 중국의 주요 저널에 12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그녀는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청년 펀드와 중국 국립 예술 펀드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왔다. 그녀의 작품이나 논문은 상을 수상하였거나 ICMC, SMC, IAWM, EMS, CHIME, FMO, 뮤직 어쿠스틱-베이징, 소닉 레인, SICMF, WOCMAT, eARTS, 카이마 국제 사운드 심포지엄 등을 비롯한 국제 행사에서 발표되도록 선정되었다.

Dr. Lu Minjie is the associate professor, the director of Electronic Music Composition Group and graduate adviser of Sichuan Conservatory of Music, and the reviewer of ICMC. She used to be the visiting scholar of University of Oregon. Her research is now focused 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cluding electronic music and culture. She has published 4 tutorials and translations about electronic music, 12 papers in CSSCI and Key Journals in China. In addition, she has been in charge of projects sponsored by Ministry of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uth Fund and China National Art Fund. Her works or papers have won prizes or been selected to present in international activities, including ICMC, SMC, IAWM, EMS, CHIME, FMO, EMW, MUSICACOUSTICA-BEIJING, Sonic Rain, SICMF, WOCMAT, eARTS, Kyma International Sound Symposium, etc.

니콜라스 샤히드 Nicholas Shaheed



니콜라스 샤히드는 어쿠스틱 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 모두를 작곡하는 작곡가로 그의 작품은 구조의 여러 측면을 탐색한다. 그의 음악은 노포크 뉴 뮤직 워크숍, SEAMUS, MOX소닉 페스티벌, CCRMA, 일렉트로닉 뮤직 미드웨스트, 뉴뮤직 온더 포인트, 더 소 퍼커션 여름 연구소, 하이SCORE 페스티벌에서 연주되었고 더 소 퍼커션, 크리스토퍼 오토, 콰레토 인다코, 키비 칸-립맨, 비올레타 듀오, 더 헬리안투스 현대 음악 앙상블이 연주해왔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프레스 상, 일렉트로닉 음악 부문 에드워드 마틸라 우수상, 브로쏘 창의력 상, 석사 우수 연구에 대한 제임스 K 히트 상 같은 많은 연구 보조금과 상을 수상했다. 니콜라스는 캔자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음악 작곡, 음악 이론 학위를 받았으며 킵 하하임, 포레스트 피어스, 잉그리드 스틸젤, 제임스 반스 아래에서 공부했다. 현재 그는 시애틀에 기반을 두고 있다.

Nicholas Shaheed is a composer of both acoustic and electronic music whose work explores aspects of structure. His music has been featured at the Norfolk New Music Workshop, SEAMUS, the MOXsonic Festival, CCRMA, Electronic Music Midwest, New Music on the Point, the So Percussion Summer

COMPOSERS

Institute, the highSCORE Festival, and has been performed by So Percussion, Christopher Otto, Quartetto Indaco, Kivie Cahn-Lipman, Violetta Duo, and the Helianthus Contemporary Music Ensemble. For his music, he has received a number of grants and awards such as the Presser Award, the Edward Mattila Award for Excellence in Electronic Music, the Brosseau Creativity Award, and the James K. Hitt Award for Outstanding Undergraduate Research. Nicholas holds degrees in computer science, music composition, and music theory from the University of Kansas, and has studied under Kip Haaheim, Forrest Pierce, Ingrid Stölzel, and James Barnes. He is currently based in Seattle.



박재영 Elsa Jaeyoung Park

박재영은 한국에 기반을 둔 작곡가이다. 그녀는 버밍햄 대학에서 일렉트로어쿠스틱 음악을 공부했고 서울 예술대학에서 재즈 피아노를 공부했다. 그녀의 흥미의 초점은 주로 일렉트로어쿠스틱 음악의 작곡과 데이터 음향화에서 무시되는 불편한 감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그녀의 음악은 영국, 독일, 호주, 한국,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되었다. 또한 그녀의 음악은 국제 컴퓨터 음악 컨퍼런스(ICMC), 서울 국제 컴퓨터 음악 페스티벌(SICMF), 여러 영화제 등의 국제 행사에도 사용된 바 있다. 그녀는 ICMC에서 ICMA 2018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다.

Jaeyoung Park is a composer based in South Korea. She studied electroacoustic music at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and Jazz Piano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Her main interests focus on exploring uncomfortable or ignored emotions primarily in the composition of electroacoustic music and data sonification. Park's music has been heard in various locations including the UK, Germany, Australia, Korea, and USA. Her music has also been featured in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ICMC),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SICMF) and film festivals. Park won the best piece of ICMA 2018 regional award Asia-Oceanic at ICMC.

COMPOSERS



박순영 Soonyoung PARK

박순영은 현대음악, 전자음악, 사운드/미디어아트, 즉흥바이올린 연주, 기획, 교육 분야에
서 활동중이다.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Room of Memory>(2012)가 한국HCI학회
Creative Awards에 입선되었으며, 2013년부터 영상작가 남편 문성식과 작업하고 있는 <
북아현코스모스>가 안산거리극축제(2015),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ICMF 2015), 국제컴
퓨터음악컨퍼런스(ICMC 2018) 등에서 발표되었다. 서울공간음향심포지엄(SoSSAS 2019)
에서 국악기와 공간음향을 위한 <Ping Pong Phase>를 작품 발표하였고, 창작집합소 물오
름 <도시소리 순환을 찾다>를 기획해 서울시청 시민청에 전시했다(2017.9-2018.3). 이화여
대 물리학과, 한양대 작곡과, 동대학원 뉴미디어음악전공,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
아트를 전공 졸업했으며, 신음악회, 한국전자음악협회, 전자음악 작곡그룹 창작집합소 물오
름 회원, 한국여성작곡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Soonyoung Park is actively involved in contemporary music, electronic sound,
sound/media art, improvised violin performance, planning, and education.
Her interactive installation "Room of Memory" (2012) received an award at
the Creative Awards held by the HCI Society of Korea. "Bugahyeon Cosmos"
is a piece she has worked on since 2013 with her husband, screenwriter
Sungsik Moon. It was presented at the Ansan Street Arts Festival (2015),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SICMF 2015), and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ICMC 2018). She presented the "Ping Pong
Phase," a piece using Korean Classical Music and spatial sound, at the
Symposium on Spatial Sound Arts, Seoul (SoSSAS 2019). She has also designed
and presented Creative Mulorum "Sound of City, Finding the Circulation" and
exhibi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itizens Hall (Sept. 2017—
Mar. 2018). She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s),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osition and Graduate
School of New Media Music), and the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Media Arts). She is an active member of the New Music
Society,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Electronic Music Composition
Group Creative Mulorum, and the Korean Society of Women Composers.

COMPOSERS



나오토 이와키 Naoto Iwaki

나오토 이와키는 일본 타마가와 대학 졸업반 학생으로, 컴퓨터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2017년에 타마가와 대학에 입학한 후로 컴퓨터 음악을 공부해 왔다. 그는 2018년에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알게 되었고 혼돈과 유기적 움직임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
고 라이브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Naoto Iwaki, senior grade student of Tamagawa University in Japan; studying
computer music. He has started learning computer music since enter
Tamagawa University 2017. He met modular synthesizer and started making
composition or live performances with that for chaos and organic motion
usage in 2018.



션 헬로웰 Sean Hallowell

적절한 비율의 구체 음악과 중세 다성음악을 바탕으로, 션 헬로웰은 음향과 음향 생성 장치
내의 잠재적 에너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일렉트로어쿠스틱, 어쿠스매틱, 오디오비주얼 음악을
작곡한다. 그는 CHIME페스트(시카고 대학), 인플렉스 여름 페스티벌(브뤼셀), 컨버전스 페
스티벌(드몽포트 대학), 오픈 서킷 페스티벌(리버풀 대학), 샬롯 뉴 뮤직 페스티벌, SEAMUS
연례 미팅 등과 같은 미국과 유럽 전역의 이벤트에서 자신의 작품을 초연했다. 그의 음악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원칙을 탐색하는 그의 글은 오거나이즈드 사운드, 아놀드 쉐넬버그 연구
소 저널, INSAM, 현대 음악, 미술, 기술 저널에 실린 바 있다. 그는 브라운 대학(AB)과 컬럼
비아 대학(PhD)에서 음악 학위를 받았다. 2017년부터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
펠로우십을 하고 있다.

Building on musique concrète and Medieval polyphony in due proportion,
Sean Russell Hallowell composes electroacoustic, acousmatic, and audiovisual
music that elaborates the potential energy within sounds and sound-making
devices. He has premiered his compositions across the US and in Europe at
such events as CHIMEFest (University of Chicago), the Influx Summertime
Festival (Brussels) the Convergence Festival (De Montfort University), the Open
Circuit Festival (University of Liverpool), the Charlotte New Music Festival, and
the annual meeting of SEAMUS. Exploring the theoretical principles underlying
his music, his writings have appeared in Organised Sound, the Journal of
the Arnold Schoenberg Institute, and the INSAM Journal of Contemporary
Music, Art, and Technology. He holds degrees in music from Brown University
(AB) and Columbia University (PhD). Since 2017 he has held a Postdoctoral
Fellowship at Stanford University.

COMPOSERS



폴 윌러스 Paul Oehlers

폴 윌러스는 그의 "굉장히 환기적인" 영화 음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음악을 사용했던 (다양한) 영화는 햄튼 국제 영화제, 아틀란타 국제 영화제, 인디페스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의 음악이 나오는 영화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의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폴 윌러스의 작품은 미국 일렉트로-어쿠스틱 음악 협회 전국 컨퍼런스, 국제 컴퓨터 음악 컨퍼런스, 갬퍼 뉴 뮤직 페스티벌, 서울 국제 일렉트로-어쿠스틱 뮤직 페스티벌, 독일 다름슈타트 새음악 및 음악 교육 연구소(Institut für Neue Musik und Musikerziehung), 제7회 브라질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등 미국 내외 해외공연과 레이건 미 전대통령을 위한 1987년 연주회 등에서 연주된 바 있다. 폴 윌러스는 2006년 맥도웰 콜로니로부터 마가렛 리 크로프트 펠로우로 지명되었다. 그는 현재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오디오 기술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Paul Oehlers is most recognized for his "extraordinarily evocative" film scores. (Variety) Films incorporating his music have won the Grand Jury prize at the Hampto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Atlan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Indiefest Film Festival. In addition, films with his music have screened at dozens of festivals in Europe, Asia, Africa, and Australia. Paul Oehlers' compositions have been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including performances at the Society for Electro-acoustic Music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conferences, the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s, the Gamper New Music Festival, the Seoul International Electro-acoustic Music Festival, the Institut für Neue Musik und Musikerziehung in Darmstadt, Germany, and the VII Annual Brazilian Electronic Music Festival, as well as a 1987 command performance for former United States President Ronald Reagan. Paul was named the Margaret Lee Crofts Fellow by the MacDowell Colony for the year 2006. He is currently Associate Professor of Audio Technology at America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김태희 Taehi Kim

김태희는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대학 피바디 음대에서 컴퓨터음악 작곡을 전공하였고 어바나-삼페인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작곡으로 박사수료하였다.

Prix d'Été competition 입상, ICMC-NYCEMF2019, ICMC2018, Norberg Festival 2017, ICMC2000 Berlin, ICMC2001 Cuba, 10th Florida Electro-acoustic Festival, SICMF2001, SICMF2004, SICMF2005, SICMF2012, 2013 Interactive Arts Performance Series at NYU, 2013 ACL-Kore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CMC2013 Perth, Australia 등 국제대회에서 작품 선정 및 발표하였으며, 다이내믹 스트럭처 앤 플루이드전("Promenade" for interactive audio-visual installation, 아르코 미술관, 서울), 미디어 파사드 - 어바웃 전(광주), 세상의 바람 그리고 데이터 (Earth,

COMPOSERS

Wind and Data) (서울대학교 Brain Fusion 예술과학 융합프로젝트), The 7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city Seoul 2012 개, 폐막공연 등에서 오디오 비주얼 융복합 작품 발표 및 전시하였다. 2014년 한국작곡가협회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코코아슬래 최우수작품당선 및 위촉되었다. 2017년, 2018년 챔버오케스트라와 드럼로봇,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와 실시간 전자음향을 위한 융복합 작품 "THE CREATION"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관료지원사업 후원으로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단독 기획공연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작곡과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 사운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ICMC2018 음악감독을 역임하였고, ICMC2018 및 ICMC-NYCEMF2019 레지던시 앙상블, ACL2019 초청연주단체로 참여한 엘뮤직그룹의 예술감독으로 현대음악 및 전자음악 전문연주단체를 이끌고 있다. 또한, ICMA, ISCM, ACL_Korea, 창악회, 한국여성작곡가협회, 한국전자음악협회, 대한수학회 회원으로, 한국전자음악협회 (부회장), ACL_Korea 실행이사로 활동 중이다.

Taehi Kim studied composi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M.), computer music composition at the Peabody Conservatory of Johns Hopkins University (M.M.), and a doctoral candidate in composition a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Her music have been selected and performed in ICMC-NYCEMF2019, ICMC2018, Norberg Festival 2017 (Sweden), ICMC2013(Perth), ICMC2000(Berlin), ICMC2001(Havana), Florida Electro-acoustic Music Festival, SICMF(Seoul), The Interactive Performing Arts Series (New York) etc. and her media art works have been presented at Dynamic Structure and Fluid, Arko Museum(Seoul), Media Façade - About, Bitgoeul Cultural Center (Gwangju), The 7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city Seoul 2012. She won the best composition award at Korean Chamber Music Composition Festival by Korean Composers Association in 2014. Her large convergent work, "THE CREATION" for chamber orchestra, drum robot, multimedia, performance and multichannel spatialization was performed at IBK Hall of Seoul Arts Center in 2017 and 2018 with sponsorship from Arts Council of Korea.

Currently, she is an adjunct professor at Composition Dept. of Hanyang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at Film & Animation Dept. of Hongik University as sound specialist. She served as music chair of ICMC2018, currently, serves as artistic director of EL MUSIC GROUP. Also, she is an active member of ICMA, ISCM, ACL, Society of Korean Composers, Society of Korean Women Composers, KEAMS (vice-president) and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COMPOSERS



리오나 쿠오 Liona Kuo

대만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리오나 쿠오는 2018년부터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드는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Wocmat2019(대만), SICMF2019(한국), ICMC-NYCEMF2019(뉴욕) 콘서트에서 발표되었고 Wocmat2018 사운드 갤러리에서 선택되었다. 현재 국립 자오퉁 대학(NCTU)의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그녀는 유-청 충 교수의 지도하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Kuo, Yng-Torng. Based in Taiwan, Taipei. After starting the creating career of Electronic music since 2018, her works has been presented in the concert at Wocmat2019(TW), SICMF2019(KR), ICMC-NYCEMF2019(NY) and selected in the Wocmat2018 Sound Gallery. Now as a master's degree student in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NCTU), majoring in Electronic music with Prof. Yu-Chung Tseng.



첸, 슈-후앙 Shu-Huang Chen

첸, 슈-후앙은 대만 대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립 대만 예술대학교 영화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비주얼 디자인 및 사운드 디자인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작 커리어를 시작했다. 또한 음악 창작을 위해 Decagram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R+i"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밴드캠프에서도 들을 수 있다. 현재 국립 자오퉁 대학 음악 연구소에서 일렉트로닉 음악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는 유청 충 교수이다.

Chen, Shu-Huang, based in Taichung, Taiwa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Motion Picture of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After graduating from the college he started a creating career in digital media arts including visual and sound designing. Also in the name of Decagram for music creating and publish an album called "R+i" in 2018. It also available on Bandcamp for listening. Now studying electronic music at the Institute of Music, Nation Chiao Tung University, and faculty advisor is the Professor Yu-Chung Tseng.

COMPOSERS



클로비스 맥이보이 Clovis McEvoy

클로비스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곡가이자 사운드 아티스트이며 현재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연구자이다. 그는 가상현실을 위한 음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랙티브 설치물 및 공연을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악기 및 전자 장치에 대한 작업을 한다. 또한 그는 댄스, 연극, 단편 영화, 어쿠스매틱, 앙상블을 위한 음악도 작곡한다. 그의 작품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에서 공연된 바 있다. 클로비스는 현재 악기 및 라이브 일렉트로닉스를 위한 일련의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크라이스트처치 현대 미술 센터에 설치될 새로운 가상 현실 설치물과 관련하여 한 건축회사와 협업 중이다. 2020년 그는 독일 베를린의 TAKT 연구소의 입주작가가 될 예정으로 그 곳에서 가상현실을 위한 새로운 음악 작업을 개발할 것이다.

Clovis McEvoy is an award-winning composer, sound artist and researcher currently based in Berlin, Germany. Clovis specialises in music for virtual reality and works for instruments and electronics, creating customised software for interactive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Clovis also writes for dance, theatre, short film, acousmatic and ensembles. His works have been performed in America, France, England, Italy,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and Switzerland. Clovis is currently working on set of new works for instrument and live electronics and collaborating with an architectural firm on a new virtual reality installation for the Centre of Contemporary Art, Christchurch. In 2020 he will be the Artist-In-Residence at the TAKT Institute in Berlin, Germany where he will be developing a new musical work for virtual reality.



신성아 Sunga SHIN, Korea

신성아는 작곡가, 사운드디자이너, 컴퓨터음악, 공연예술 등을 중심으로 작업 중이다.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음악원 컴퓨터음악작곡 석사(Prof. Boyle), 미주리주립대학교 사운드디자인(Prof. Mardikes) 석사(M.F.A.), 작곡(Dr. Chen Yi) 박사를 받았다. 미주리주립극단, 아스펜페스티벌 레지던시, 뉴욕 RPI에서 레지던스작곡가로 일하였으며, 2003년부터 RPI작곡가시리즈 초청연주회를 시작으로 MixMediaImprov. 시리즈로 9회에 걸친 개인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국제컴퓨터음악컨퍼런스,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SEAMUS, JSSA, ACMP, June in Buffalo, EMS, 서울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부산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여성영화제 등에서 연주되었다. 2009년 Asia Computer Music Project(ACMP)를 창립하여 아시아의 컴퓨터음악을 공연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실험영화프로젝트 The Thin Line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독립영화제 2017에서 사운드디자이너로 열혈스탭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일일사운드 멤버로,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작곡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COMPOSERS

Sunga Shin is actively involved in music composition, sound designing, computer music, and performing arts. She completed her undergraduate degree in Music Composition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nd has earned a Master's degree in Computer Music Composition at the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thesis advisor Prof. Boyle), another Master's degree (MFA) in Sound Design at Missouri State University (Prof. Mardikes), and doctorate in Music Composition (Dr. Chen Yi). She worked as a resident music composer at the Missouri State Theater, Aspen Festival Residency, and New York RPI. Her pieces were performed at the RPI Composer Series Invitational Concert in 2003, nine personal music composition presentations at the MixMediaImprov series,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SEAMUS, JSSA, Asia Computer Music Project (ACMP), June in Buffalo, EMS, Seoul Theatre Festival,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omen's Film Festival. She was awarded the Passionate Staff Award at the 2017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he established the ACMP in 2009, and performed Asian computer music.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n experimental film project, the Thin Line Project. She is a current member of Ilil Sound and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at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nd Performance Arts).



더글라스 헤드윅 Douglas Hedwig

작곡가 더글라스 헤드윅은 27년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 2011년부터 작곡에 완전히 주력하기 시작한 이래 그의 음악은 노스/사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NYC), 워터베리 심포니 오케스트라(CT), 모토콘트라리오, 오케스트라 디 오르비에토 뮤지카, NED 앙상블(이탈리아), 런던 뉴 윈드 페스티벌(영국), 차타누가 심포니, 체스트넛 브라스, 코랄 아츠 등이 연주했다. 그의 고정 미디어 및 일렉트로닉 작품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우의 라디오프렌시아와 웨이브팜(WGXC, 뉴욕)이 전 세계로 방송했다. 그의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3중주는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초연되었다. 헤드윅 박사는 줄리어드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브루클린 컬리지(CUNY)에서 음악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 수상 경력에는 브러시 크릭 예술 재단(WY), 윌라파 베이 AiR(WA), 시에나 예술 연구소(이탈리아)에서 받은 펠로우십, 레지던시, 커미션 등이 있다. 그의 음악은 칼 피셔 뮤직, 히크만 뮤직 에디션즈, TRN 뮤직에서 발표된다.

Composer Douglas Hedwig was a trumpet player with the Metropolitan Opera Orchestra for 27 years. Since turning his full attention to composition in 2011, his music has been performed by the North/South Chamber Orchestra

COMPOSERS

(NYC), Waterbury Symphony Orchestra (CT), by MotoContrario, Orchestra di Orvieto Musica, and NED Ensemble (Italy), London New Wind Festival (England), Chattanooga Symphony, Chestnut Brass, Choral Arts,. His fixed-media and electronic works have been broadcast worldwide by Radiophrenia from Glasgow, Scotland, and by the Wave Farm (WGXC, New York). His trio for violin, viola & piano was premiered in Jakarta, Indonesia in July 2019. Dr. Hedwig taught at The Juilliard School and is Professor Emeritus of Music at Brooklyn College (CUNY). Awards and honors include fellowships, residencies and commissions from Brush Creek Foundation for the Arts (WY), Willapa Bay AiR (WA), and the Siena Art Institute (Italy). His music is published by Carl Fischer Music, Hickman Music Editions, and TRN Music.



미셸 청 Michele Cheng

미셸 청은 사회적 문제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음악, 실험적 연극, 기타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다학제 예술가이다. 그녀는 다학제 즉흥연주 공동체 fff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녀의 작품은 디종 미술관(프랑스 디종), 소닉 예술 연구소(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포디움 자이칸트(네덜란드 아펠도른), 몬트리올 퀘벡 음악원(캐나다 몬트리올), 국립 연극 & 콘서트 홀(대만 타이페이), CCRMA 음악 및 음향학 부문 컴퓨터 연구를 위한 스탠포드 센터(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빙 콘서트 홀(캘리포니아 스탠포드), 오렌지 카운티 미술관(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실험적 미디어 공연 랩(캘리포니아 어바인), 에머슨 파라마운트 극장(매사추세츠 보스턴) 등등 전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되었다. 그녀는 소노리티스 페스티벌 벨파스트(영국 벨파스트), 뉴 뮤직 개더링(오레건 포틀랜드), 화이트 스네이크 프로젝트(매사추세츠 보스턴), UCI 일루미네이션즈(캘리포니아 어바인), 쉬 스코어스 페스티벌(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뷰 심포지엄(유타 파크시티), 이브스드로핑 심포지움(잉글랜드 런던)에도 출연했다. 미셸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에서 융복합 작곡, 즉흥연주 및 기술(ICIT) MFA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Michele Cheng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ho uses music, experimental theatre, and other forms of media to be in dialogue with social issues and cultural identities. She is a co-founder of the interdisciplinary improv collective fff. Her works have been performed around the world at places including Musée des Beaux-Arts de Dijon (Dijon, France), Sonic Arts Research Centre (Belfast, Northern Ireland), Podium Gigant (Apeldoorn, Netherlands), Conservatoire de musique du Québec à Montréal (Montreal, Canada), National Theatre & Concert Hall (Taiepi, Taiwan), as well as CCRMA Stanford Center for Computer Research in Music and Acoustics (Stanford, CA), Bing Concert Hall (Stanford, CA), Orange County Museum of Arts (Santa Ana, CA), Experimental Media Performance Lab (Irvine, CA), Emerson Paramount Theatre (Boston,

COMPOSERS

MA), among others. She has been featured by Sonorities Festival Belfast (Belfast, UK), New Music Gathering (Portland, OR), White Snake Project (Boston, MA), UCI Illuminations (Irvine, CA), She Scores Festival (Pittsburgh, PA), Vu Symposium (Park City, UT), and eavesdropping symposium (London, England). Michele holds an M.F.A in Integrated Composition, Improvisation, and Technology (ICIT)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he's currently based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https://www.michelecheng.com/>



마르코 시칠리아니 Marko Ciciliani

마르코 시칠리아니(*1970년 자그레브)는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곡가, 오디오비주얼 아티스트, 연주자 및 연구자이다. 그의 작품의 초점은 대부분 오디오 비주얼 맥락에서의 수행적 일렉트로닉 음악의 작곡에 맞추어져 있다. 인터랙티브 비디오, 조명 디자인과 레이저 그래픽은 많은 경우 그의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칠리아니의 작품은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미주 전역의 4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공연되어왔다. 이들 작품은 5장의 전곡 CD와 두 권의 멀티미디어북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12개 이상의 편집 C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칠리아니는 그라츠 음악 및 공연예술 대학 일렉트로닉 음악 및 음향학 연구소(IEM)에서 컴퓨터 음악 작곡 및 음향 디자인 교수에 재직중이다. 2013년부터 그는 앤트워프에 있는 LABO 다학제 과정의 코치로 정기적으로 초청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2020년과 2021년 예술 감독직을 수행한다. 2014년부터 그는 또한 "다름슈타트 현대 음악을 위한 여름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시칠리아니는 "GAPPP-게임화된 오디오비주얼 공연 및 공연 관례"라는 제목의 예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오스트리아 과학 펀드의 PE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2016-2020년간 진행된다.

Marko Ciciliani (*1970, Zagreb) is a composer, audiovisual artist, performer and researcher based in Austria. The focus of his work lies in the composition of performative electronic music, mostly in audiovisual contexts. Interactive video, light design and laser graphics often play an integral part in his compositions. Ciciliani's works have been performed in more than forty-five countries across Eurasia, Oceania and the Americas. They have been released on five full-length CDs and two multimedia books. In addition, his music can be found on more than a dozen compilation CDs. Ciciliani is Professor for Computer Music Composition and Sound Design at the Institute for Electronic Music and Acoustics (IEM) of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Graz. Since 2013 he has regularly been invited as coach to the multidisciplinary course LABO in Antwerp, for which he serves as Artistic Director in 2020 and 21. Since 2014 he has also been tutor at the "Summer Courses for Contemporary Music Darmstadt". Ciciliani was granted funding for

COMPOSERS

an artistic research project titled "GAPPP-Gamified Audiovisual Performance and Performance Practice". It is funded as part of the PEEK program of the Austrian Science Fund and runs from 2016-20.

<http://www.ciciliani.com>

<http://vimeo.com/channels/cicichannel>

<http://gappp.net>



호르헤 가르시아 델 발레 멘데스 Jorge García del Valle Méndez

호르헤 가르시아 델 발레 멘데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스페인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그는 바순과 작곡을 공부했다. 1992년부터 그는 독일에서 살면서 작곡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공부했다. 그의 작곡 스타일은 음향 구조를 통한 시간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음향 생성기나 작곡 방식으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한다. 일렉트로닉 음악을 통해 그는 디지털 분석과 사운드 프로세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는 이를 이론적 작업과 음악 작업에 활용해 왔다. 그는 바순 멀티포닉스와 이를 현대음악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바순 멀티포닉스의 사운드 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분석을 연구했다. 그의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는 확실히 국제적인 경로를 따랐다. 그의 작품은 1993년부터 전세계에서 연주되고 방송되었다. 그는 자주 다양한 국제 기관으로부터 작품의뢰를 받는다. 몇 가지 상을 통해 그의 음악은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일리노이 대학(미국)의 살바토레 마르티라노 작곡상과 색소 음악위원회 작곡상(독일)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모나코 국제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 작곡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그는 페스티벌 베르나올라(스페인), 일렉트로닉 뮤직 미드웨스트 페스티벌 EMM(미국), SICMF 페스티벌(한국), NYCEMF(미국), ICMC, EMU페스트(이탈리아), WOCMAT(대만) 등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2012년 그는 작곡 강사로 스웨덴의 하지달렌스 여름 아카데미에 초청되었다.

Jorge García del Valle Méndez was born in Germany, but grew up in Spain, where he studied bassoon and composition. Since 1996 he lives in Germany where he studied composition and electronic music. His compositional style is based on the articulation of time through sound structures, habitually through electronic means as sound generators or as a method of composition. Through electronic music he became interested in digital analysis and sound processing, which he has applied to theoretical and musical works. He has also researched into digital analysis in Bassoon multiphonics and their sound possibilities in the application to contemporary music. His compositional career has definitely taken an international course. His works are performed and broadcasted worldwide since 1993. He frequently receives commissions from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Several prizes gave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his music. He has been recipient of the Salvatore Martirano

COMPOSERS

Composition Award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USA) and the Sächsischer Musikrat Composition Award (Germany). He also received an Honorary Mention in the Concours International de Composition de Musique Electroacoustique de Monaco.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festivals, including the Festival Bernaola (Spain), the Electronic Music Midwest Festival EMM (USA), the SICMF Festival (South Korea), the NYCEMF (USA), the ICMC, the EMUFest (Italy) and the WOCMAT (Taiwan). In 2012 he was invited at the Härjedalens Summer Academy in Sweden as composition's lecturer.



김지현 Jihyun Kim

김지현은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독일 쾰른음대 작곡과에서 Johannes Fritsch를 사사(Diplom), 폴크방 에센음대 작곡과 전자음악 전공에서 Thomas Neuhaus와 Roman Pfeifer사사(Diplom), 작곡과 최고과정(Aufbaustudium)에서 Günter Steinke를 사사하였다. 페스티벌 "Utopie Jetzt", Musicacoustica, Pan Music Festival, 대구국제현대음악제, SICMF,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오케스트라 주최 "Experi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Composers"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였고, 현재 가천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한국전자음악협회 등 회원과 앙상블 비트윈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Composer Jihyun Kim was born in Korea. After completing her BA and MA in Music Composition at Ewha Womens University, she moved to Germany. She studied composition with Johannes Fritsch at Hochschule für Musik Köln (Diploma), electronic music with Thomas Neuhaus and Roman Pfeifer (Diploma). Also, she studied composition with Günter Steinke (Aufbaustudium) at Folkwang Hochschule Essen. Her pieces have been performed at several festivals such as "Utopie Jetzt" 2008 in Germany, and Musicacoustica 2006 and 2009 in China, Pan Music Festival in Korea, Daegu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c Festival and SICMF. and "Experi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Composers". Currently, Jihyun Kim teaches at Gachon University, Sungshin University and Ewha Women's University and also she is active as a director of Ensembl Between an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Composers, Korean Music Society in Seoul and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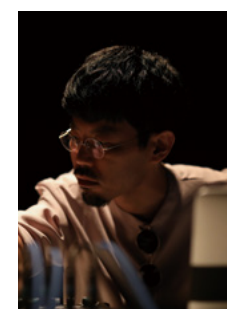
COMPOSERS



강중훈 Joong-Hoon Kang

강중훈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에서 작곡과 전자음악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 그의 작품세계는 소리 분석에 의한 음향의 다차원적 형태변형과 컴퓨터를 응용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작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강중훈은 현재 한국전자음악협회(KEAMS), 21세기악회, ISCM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Joong-Hoon Kang is a composer and researcher with a special interest in the field of electroacoustic music. For many years, he has focused on multi-dimensional aspects of sound morphology and computer-aided composition using various algorithms, often incorporating elements of traditional music found in the diverse cultures. His compositions have been performed at various music festivals and conferences including the SICMF and ICMC. Joong-Hoon Kang received a B.M. and B.E. from Yonsei University, M.M. and D.M.A. from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He is Associate Professor of Music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a member of KEAMS and the Korea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Music.



히로무 타카노 Hiromu Takano

히로무 타카노(1986년 출생)는 현재 도쿄에 기반을 둔 일본 작곡가이다. 그는 야마나시 대학 학사 및 석사 과정에서 요시부미 후지와라와 타로 요시하라와 함께 작곡을 공부했다. 그의 작품은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ICMC(상하이, 2017), SICMF(서울, 2019), CCMC(도쿄, 2007, 2011-2019), 제2회 도쿄 국제 예술 음악 작곡 대회(도쿄 2011)를 비롯한 다양한 페스티벌과 콘서트에서 연주되었다. 그는 또한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 콘서트에 사용되는 음향 시스템의 음향 기술자로서, 그리고 어쿠스모니움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자네시, 빈센트 라보프, 카즈오 우에하라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해오고 있다. 그는 JSEM(일본 일렉트로닉 음악 협회)과 ACSM116(L'ATELIER DE CREATION SONORE ET MUSICALE 116)의 회원이다.

Hiromu Takano (b.1986) is a Japanese composer currently based in Tokyo. He studied composition with Yoshibumi Fujiwara and Taro Yoshihara at University of Yamanashi and the post-graduate course. His works have won prizes and been performed in a range of festivals and concerts including ICMC (Shanghai, 2017), SICMF (Seoul, 2019), CCMC (Tokyo, 2007, 2011-2019) and The 2nd Tokyo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Art Music Composition (Tokyo, 2011). He is also active as a sound engineer of sound systems used in concerts of electroacoustic music and a performer of acousmonium, has worked on the performances of the works of Christian Zanési, Vincent Laubeuf, Kazuo

COMPOSERS

Uehara and many other composers. He is a member of JSEM (Japanese Society for Electronic Music) and ACSM116 (L'ATELIER DE CREATION SONORE ET MUSICALE 116).



양민석 Minsuk Yang

양민석은 조선일보 신인음악가, 범음악제, 컴퓨터 음악 대회(한국전자음악협회 주최)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작품은 Cincinnati, Florida, Princeton, Stanford, Kobe, Osaka 등지에서 연주되었으며, 근래에 그의 작품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던 국제색소폰 협회와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ICMC 2018에 연주 되었다. 그는 가천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한 후, 미국 쉰시네티 음대(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에서 작곡과 컴퓨터 음악으로 박사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창악회, ISCM Korea, 한국 전자음악협회, ACL Korea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Minsuk Yang was rewarded at the ChosunIlbo Debut Contest, Pan Music Festival, Computer Music Contest (sponsored by the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and his pieces were played across the world in various places, such as Cincinnati, Florida, Princeton, Stanford, Kobe, and Osaka. Recently, his pieces were played at the International Saxophone Association conference in Scotland and at the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ICMC 2018). He studied at Gachon University and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earned his doctorate in Music Composition and Computer Music at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He currently teache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is also an active member of the Contemporary Music Society in Seoul, ISCM Korea,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and ACL Korea.

COMPOSERS



클레멘스 본 로스너 Clemens von Reus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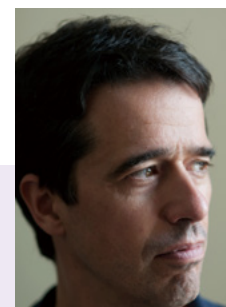
클레멘스 본 로스너(1957년 출생)는 독일에 기반을 둔 작곡가이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그의 작품은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비 레이더와 피터 가이거와 함께 음악학과 음악-교육-드럼을 공부했다. 1970년대 말부터 그는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 라디오 극, 사운드시케이프 작곡을 해왔다. 1980년대 말 음악 소프트웨어 칸딘스키 뮤직 페인터의 개발. 클레멘스 본 로스너는 독일 작곡가 협회(DKV)의 회원이다. 그의 곡은 미주, 아시아, 유럽에서 수 차례 국제적으로 방송되고 공연되었다.

www.cvr.net.de

Clemens von Reusner (b. 1957) is a composer and sound artist based in Germany, whose work is focused on electroacoustic music. He studied musicology and music-education - drums with Abbey Rader and Peter Giger. Since the end of the 1970s he has been engaged in electroacoustic music, radio plays and soundscape compositions. At the end of the 1980s development of the music software KANDINSKY MUSIC PAINTER.

Clemens von Reusner is a member of the German Composers' Society (DKV). His compositions have received numerous international broadcasts and performances in Americas, Asia, Europe.

www.cvr.net.de



주앙 페드로 올리베이라 João Pedro Oliveira

작곡가 주앙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작곡 분야 코윈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그는 리스본에서 오르간 연주, 작곡, 건축을 공부했고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톤 브룩 캠퍼스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의 음악에는 오페라, 오케스트라 작품, 실내악,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 실험적 비디오 등이 있다. 그는 부르쥬 일렉트로아쿠스틱 음악 대회에서의 상 3건, 프리스티지 마지스테리움 상 및 기가-헤르츠 특별상, 메타모포시스 대회 1등상, 야마하-비지오네 소노라스 대회 1등상, 뮤지카 노바 대회 1등상 등을 비롯하여 50개 이상의 국제적 상을 수상했다. 그는 아베이로 대학(포르투갈)과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 대학(브라질)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출판물에는 저널에 발표한 몇몇 글과 20세기 음악 이론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다.

Composer João Pedro Oliveira holds the Corwin Endowed Chair in Composition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He studied organ performance, composition and architecture in Lisbon. He completed a PhD in Music at th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His music includes opera, orchestral compositions, chamber music, electroacoustic music and experimental video. He has received over 50 international prizes and awards for his works, including three Prizes at Bourges Electroacoustic

COMPOSERS

Music Competition, the prestigious Magisterium Prize and Giga-Hertz Special Award, 1st Prize in Metamorphoses competition, 1st Prize in Yamaha-Visiones Sonoras Competition, 1st Prize in Musica Nova competition. He taught at Aveiro University (Portugal) and Federal University of Minas Gerais (Brazil). His publications include several articles in journals and a book on 20th century music theory.



톰 윌리엄스 Tom Williams

톰 윌리엄스는 허더스필드 대학과 킬리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보스턴 대학에서 작곡 박사학위를 마쳤다. 1980년대부터 그는 어쿠스틱 미디어와 일렉트로어쿠스틱 미디어 모두를 위해 작곡했다. 그의 음악 녹음기록은 키친웨어, TEM, 알바니 레코드 레이블즈에서 구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은 국제 컴퓨터 음악 컨퍼런스, 오스트랄라시안 컴퓨터 음악 컨퍼런스, SEAMUS(미국), 뉴욕 NYCEMF, 소노리티스, 벨파스트 퀸즈 대학 등과 같은 국제 페스티벌과 컨퍼런스에서 광범위하게 공연되었다. 최근 공연으로는 취리히 SABRE, 상파울로 CMMR, 헬 뮤직+사운드, 그리니치 대학 EMAS2019 공연이 있다. 그는 ALEA III 보스턴으로부터 상을 수상했고, 이탈리아 음악 메달 "시타 디 우디네"를 받았으며, 프랑스 IMEB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영국 작곡가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최근 작품으로는 뉴욕 첼리스트 매들린 샤피로를 위한 곡, 소프라노 줄리아나 제인스 야페를 위한 곡,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자 사라 왓츠를 위한 곡, 프랑스 타악기 연주자 띠에리 미로글리오를 위한 곡, 그리고 댄스 엄브렐라를 위한 사운드시케이프가 있다. 톰 윌리엄스는 코벤트리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www.tw-hear.com

Tom Williams studied music at Huddersfield and Keele Universities and completed a doctorate in composition at Boston University. Since the 1980s he has been composing for both acoustic and electroacoustic media. Recordings of his music are available on the Kitchenware, TEM and Albany Record labels. His music has been widely performed at international festivals and conferenc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the Australasian Computer Music Conference, SEAMUS (USA), NYCEMF in New York, and Sonorities, Queens University, Belfast. Recent performances include SABRE, Zurich; CMMR, Sao Paulo; Music+Sound, Hull; and EMAS2019 at Greenwich University. He has received awards from ALEA III Boston, the Italian music medal 'Città di Udine', Honourable Mention; IMEB, France, and a British Composer Awards nomination. Recent work includes for the New York cellist, Madeleine Shapiro; the soprano Juliana Janes Yaffé; the contrabass clarinetist Sarah Watts; French percussion Thierry Miroglio, and a soundscape for the Dance Umbrella. Tom Williams is Associate Professor in Composition at Coventry University. www.tw-hear.com

COMPOSERS



프리다 아브탄 Freida Abtan

프리다 아브탄은 실감 미디어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캐나다의 오디오비주얼 작가이자 다학제 아티스트다. 그녀는 콘서트 디퓨전, 설치물, 대형 멀티미디어 공연 현장을 위한 음향 및 비디오 분야에서 고정된 컴퓨터 사용 기술과 실시간 컴퓨터 사용 기술을 번갈아 가며 작업한다. 그녀의 음악은 어쿠스매틱 작품에서 좀 더 산업적이고 대중 음악의 영향을 받은 실험적 공연에까지 이른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유명한 실험적 음악 그룹 너스 위드 운드의 무기명 회원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비주얼을 국제적으로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 공연, 그리고 설치물은 여러 페스티벌 중에서도 ICMC, 일렉트로닉 음악 스파크 페스티벌, 뮤텍, 일렉트라 페스티벌, 캡 셈브라트에 등장했다. 현재 그녀는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에서 일렉트로닉 음악, 컴퓨팅, 기술 프로그램 Bmus/Bsc 프로그램을 통솔하고 있다.

Freida Abtan is a Canadian audiovisual composer and multi-disciplinary artist with a keen interest in immersive media. She works between fixed and real-time computational technologies in sound and video for concert diffusion, installation, and large-scale multimedia performance situations. Her music ranges from acousmatic composition to more industrial and pop-influenced experimental performance. Both as a solo artist, and as a floating member of the renowned experimental music group Nurse with Wound, she has toured her music and visuals internationally. Her compositions,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have been featured at ICMC, the Spark Festival of Electronic Music, Mutek, The Elektra Festival, and Cap Sembrat amongst many others. Currently, she leads the Electronic Music, Computing, and Technology programme Bmus/Bsc programme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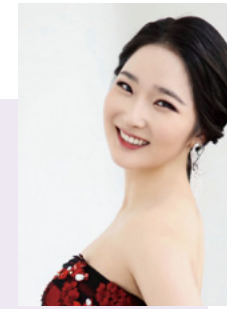
로저 다넨버그 Roger Dannenberg

로저 다넨버그는 작곡가, 연주자,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이다. 그는 컴퓨터 음악 분야의 선구자이며 인텔리전트 인터랙티브 음악 시스템으로 유명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오디오 편집기 오대시티의 공동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라이스 대학에서 폴 쿠퍼와 함께 작곡을 공부했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레오나르도 발라다와 함께 오케스트레이션을 공부했는데, 카네기 멜론에서 그는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프렘펫 연주자로서 다넨버그는 재즈, 실험적 음악, 고전 음악을 연주하며 여러 콘서트와 국제 페스티벌에서 자신만의 인터랙티브 컴퓨터 음악 작품을 연주하기도 했다. 조지 사스트르와 공동 작곡한 그의 오페라인 <더 마더 오브 피쉬스(The Mother of Fishes)>는 2016년에 초연되었고 스페인, 멕시코, 미국에서 연주되었다.

Roger Dannenberg is a composer, performer and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He is a pioneer in the field of Computer Music and known for intelligent interactive music systems, and the co-founding

COMPOSERS

of Audacity, the most widely used digital audio editor. He studied composition with Paul Cooper at Rice University and orchestration with Leonardo Balada at Carnegie Mellon, where he also received a PhD in Computer Science. As a trumpet player, Dannenberg performs jazz, experimental, and classical music, and he has performed his own interactive computer music pieces in many concerts and international festivals. His opera, The Mother of Fishes, co-composed with Jorge Sastre, premiered in 2016 and has been performed in Spa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PERFORMERS

이세미 Semi Lee (soprano)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학부를 졸업하였다. 한음콩쿠르 대학부에서 1등 수상하였으며, 2018년 이화여대 130주년 오페라 "코지판투테"에서 데스피나역으로 출연하였다.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Vocal Music, College of Music). She was awarded first place in the College Section of the Haneum Contest and performed as Despina at Ewha Woman's University 130th anniversary performance of "Cosi fan Tutte" in 2018.



윤여민 Yeomin Yoon (saxophone)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음악박사 졸업(DMA)
(한국인 최초 색소폰박사, 색소폰전공 및 재즈 부전공)

남가주대학교(USC) 연주자과정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및 경주대 조교수 역임

Légère Reeds 아티스트 및 미국색소폰협회 정회원

현)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문예술학부장 및 음악 전임교원

Graduated from the doctorate program in Music at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DMA) (the first Korean national to earn a doctorate in saxophone performance; saxophone major and jazz minor)

Graduated from the Performance Cours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Graduated from the Master of Fine Arts Program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cture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sistant Professor at Gyeongju University

Légère Reeds Artist and a Member of the North American Saxophone Alliance

Current Chair of the Department of Arts and Humanities at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a full-time professor in the Music Department

PERFORMERS



김아름 Areum Kim (piano)

피아니스트 김아름은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동 대학교의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로 졸업하였다. 그 후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의 성악 반주과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그녀는 일찍이 삼익콩쿨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전국학생장학콩쿨 입상 및 국내의 다수 콩쿨에서 입상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독일 볼프강 피셔 실내악 콩쿨에서도 입상하며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두 차례의 독일 뷔르츠부르크 독주회를 시작으로 독일 카셀 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의 페스티벌에 연주자로 초청되었다. 현재 전남대, 목원대, 강원대, 선화예중, 덕원예고 출강 중이며, 한국리스트협회 이사, 앙상블 비트윈, 린트리오 멤버로 활동 중이다.

Pianist Areum Kim graduated from Sunhwa Arts High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She unanimously graduated from the Konzert-Examen (Professional Performers Course) at the Wuerzburg National College of Music Germany, and the Best Performers Course at the University. After that, she graduated from the master's course in vocal accompaniment at the National Music University of Essen Folkwang, laying the foundation as a professional performer. She previously won a silver prize at the Samick Competition, won a national student scholarship competition, and won many competitions in Korea, and was recognized for her best ability by winning a prize at the Wolfgang Fisher Chamber Music Competition in Germany. In addition, she has been invited to many festivals, including two recitals in Wurzburg, Germany and invited performances at the Kassel Music Festival in Germany. Currently she teach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okwon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nhwa Arts Middle School, Deokwon Art High School. Also She active as a Director of Korean Liszt Association and Member of Ensemble Between, and Lin trio.



이은미 Eunme Lee (flute)

플루티스트 이은미는 충북예고와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Essen Folkwang Universität der Künste)에서 전문연주자과정(DMA) 및 최고연주자과정(Master of Orchester)을 졸업하였고 Traverso (바로크 플루트)를 수료하였다. 귀국 후 다수의 독주회와 신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무대에서 솔리스트 및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공주대학교, 계원예술중학교에 강사로 출강하며 project21AND, Ensemble Between 단원이다.

Eunme Lee, born in Korea, graduated from Chung-buk Arts High School and College of Music at Chung-ang University. She moves to Germany and

PERFORMERS

graduated from the Essen Folkwang Universität der Künste, at the Professional Performers Course (DMA) and Master of Orchester and completed Traverso (Baroque flute).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been worked as a soloist and ensemble member in a number of recitals and concerts. Currently she is teaching at Chung-Ang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and Kaywon Arts Middle School as active as a member of project21AND and Ensemble Between.



김건주 GeonJoo Kim (clarinet)

클라리네티스트 김건주는 국내 연주자로서는 드물게 클라리넷과 전자음향 작품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Performer's Guide to Selected Works for Clarinet and Electro-Acoustic Music>을 발표하고 전자음악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7년 클라리넷과 전자음향 작품을 위한 리사이틀 시리즈 'ELECTRONICA'를 기획하여 현재 4회에 이르고 있으며, ICMC, SICMF,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을 비롯해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발표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일리노이 대학교(UIUC)에서 클라리넷 연주와 문헌 박사학위를 받았으며(부전공:관악합주지휘), 피바디 음악원에서 석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 목원대, 선화예중에 출강을 하고 있다.

Clarinetist GeonJoo Kim uniquely wrote her dissertation on Clarinet and Electro-Acoustic Music and is continuously involved in Electronic Music through performances. She successfully produced a recital series 'ELECTRONICA' specifically for clarinet and electro-acoustic music which is on the fourth season this year. She performed in ICMC, SICMF, The Korean Chamber Composition Festival as well as avidly performing in contemporary composers' premiere recitals. She received her Doctorate of Musical Arts Degree in Clarinet Performance and Literature (with a cognate in Wind Conducting)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IUC), her Master's Degree at the Peabody Conservatory, and her Bachelor's Degree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he currently is a lecturer of clarinet at Chungnam University, Mokwon University and Sunhwa Arts Middle School.

PERFORMERS



김유경 Youkyung Kim (flute)

서울예고, 연세대 음악대학 졸업

일리노이 주립대 석사 및 박사 졸업

한국 플룻 협회 콩쿨 1등

미국 내셔널 플룻 협회 콩쿨 2등

사라소타 뮤직 페스티벌 초청 (전액 장학금)

현 의왕시 필하모닉 플루트 수석, 엘뮤직그룹 멤버, 송실대, 수원여대, 고양예고, 인천예고 출강

Graduated from Seoul Arts high school

Yonsei university (BM)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M & DMA)

1st prize at Korea Flute Association competition

2nd prize at National Flute Association competition

invited to Sarasota Music Festival with full scholarship

Currently, principal flute of Ui-wang civic philharmonic orchestra, member of El Music Group, lecturer of Soongsil university and Suwon women university

홍인경 InKyung Hong (piano)

예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실기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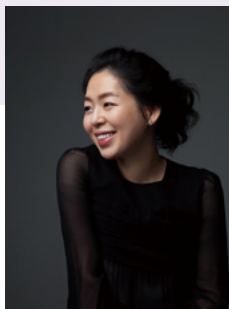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최우등 졸업, 박사학위, Indiana University AD취득(dean's scholarship수여)삼익콩쿨, 한국일보콩쿨, 난파콩쿨, 음연콩쿨 등 입상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MTNA State Competition 우승, Tel-Hai Master Classes Maria Bondarenko Awards 수상, 서울대학교 협주곡콩쿨, Indiana University Concerto Competition 우승,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콘서트홀), 인디애나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Richard K. Stern Concert Hall), 11시 콘서트 코리안심포니와 협연(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독주회(금호아트홀), JM Debut Series 초청독주회(금호아트홀), 세라믹 팔레스홀 데뷔 콘서트 초청 독주회(세라믹 팔레스홀),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시리즈 초청 독주회(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1시 콘서트 코리안심포니와 협연(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tudio 2021 : New Etudes Project' 피아니스트로 참여 및 음반발매

현 한양대 겸임교수, 서울대, 가천대 출강, 앙상블 여운 멤버

SNU BM, DMA, Indiana University AD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MTNA State Competition winner, Tel-Hai Master Classes Maria Bondarenko Awards, SNU concerto competition, Indiana University Concerto Competition winner, Kumho Artist Concert, JM Debut Series recital, Seoul Arts Center solo concert, SAC Brunch Concert, 'Studio 2021 : New Etudes Project' Album release, an adjunc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a lecturer at SNU



PERFORMERS



진민수 Minsu Jin (cello)

연세대학교 실기최우수 수시입학 및 졸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Master)졸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Meisterklasseexamen)졸업

Mahler projekt ochester 첼로수석 역임

서울 국제음악제 첼로수석 역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객원 첼로수석 역임

앙상블 아틀러, 쥬드 콰르텟 첼리스트

경기예고, 선화예고 출강중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usic graduated (with prof. Sungwon Yang)

Dresden Hochschule für Musik

Master graduated (with prof. Emil Rovner)

Dresden Hochschule für Musik Meisterklasseexamen graduated.

Mahler projekt ochester with Bladmir Jurowsky principal cellist.

Korean symphony orchestra, Gang-nam symphony orchestra, Prime phillharmonic orchestra guest principal cellist.

ensemble Adler, Quartet Jude cellist.

teach at Sun-hwa Art High school, Gyung -ki Art High school

허경호 Kyoungho Hur (double bass)

연세대학교 재학중 도독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Diplom 졸업

International Junge Orchester Akademie 장학생

독일 BR Klassik "U21" 출연 연주

Sparkasse Koblenz 초청 연주 및 청중상

KT 챔버오케스트라, 연세신포니에타 단원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역임

Graduated from '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in Köln' in Germany.

Scholar at 'International Junge Orchester Akademie' in Germany.

Appeared on German Radio Station BR Klassik to perform.

Invited to perform at a concert hosted by Sparkasse Koblenz (German Bank).

Previously served as 1st Principal Double Bass of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Current member of KT Chamber Orchestra and Yonsei Sinfonietta.



PERFORMERS



손은영 Eun-young Son (piano)

슈만 음반을 발매한(소니 클래식) 손은영은 풍부한 소리와 성숙한 음악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이다. 뉴욕 카네기홀(Carnegie Weil Hall)에서 입상자 데뷔 연주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의 유서 깊은 연주장에서 그녀의 뛰어난 음악성을 선보였다. 독일 뉘른베르크(Nueremberg)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레비에하(Torrevieja) 심포니 오케스트라, 칼스 바트(Carlsbad)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였으며 이외에도 테플리체 베토벤 국제 페스티벌, 아시아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싱가포르 국립 난양이공대학교 초청(도로시 정 재단 후원)으로 2회의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가지는 등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스위스 베른의 예후디 메뉴인 재단 초청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대전 예술의전당, 대구 수성아트피아, 대구 콘서트하우스,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 다양한 곳에서 청중들을 만나고 있다.

뉴욕 아메리칸 프로티지 국제 콩쿠르 1위, 이블라 그랜드 프라이즈 국제 콩쿠르 3위,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은상을 수상한 그녀는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에서 실력 있는 음악인으로 인정받았다. 추계 예술대학교(전경주 사사)에서 전 학기 장학금과 총장상을 받고 졸업한 이후,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데틀레프 카이저(Detlef Kaiser) 교수의 지도 아래 전문연주자 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콘체르트엑자멘)을 각각 최고점수로 졸업하였다.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재 단(DAAD) 장학금 후원으로 독일 드레스덴 페스티벌에 2회 초청받아 참가 및 연주하였다. 이 밖에 우고르스키, 길리르프, 아르놀프 폰 아님, 첸지퍼, 문익주, 장형준 교수 등의 가르침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축, 폭넓은 음악을 섭렵하며 꾸준히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피아니스트 손은영은 서울 국제 컴퓨터 페스티벌, 대전 현대음악협회, 한국국민악회, 신음악학회 및 여러 작곡가의 작품 발표회에서 참신하고 학구적인 레퍼토리를 대중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서며 그녀만의 음악적 감각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유아 음악교육(창지사)」이 있고, 후학 양성과 음악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un-young Son, being highlighted for her rich sound, delicate touch and powerful performanc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and has been praised by many critics and audiences. Son has been performing in numerous concerts including a prize winner debut concert at the Carnegie Hall in New York. She also performed in Gewandhaus zu Leipzig (Germany), in the Smetana Hall (Czech Republic) with Carlsbad Symphony, in Auditorium International of Torrevieja (Spain) with Torrevieja Symphony, in Deagu Concert House with Deagu Symphony Orchestra, the International Beethoven Music Festival Teplice (Czech Republic), the Asia International Piano Academy & Festival with Prima Vista String Quartet,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the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sponsored by the Dorothy Cheung Memorial Fund; Singapore) and several others in Italy, Switzerland, Japan and Korea (including in the Seoul Art Center, Sejong Chmaber Hall, Kumho Art Hall, etc.). She won several awards in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piano competitions, including first prize at the American Protégé in New-York, third prize at IBLA Grand Prize Competition, the Silver medal at the Piano Society of Korea

PERFORMERS

Competition and the President Prize and scholarship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On completing her studies in Korea, she moved to Germany and graduated under prof. Detlef Kaiser with a master's degree(Diplom pianistin) and Doctor's degree(Konzertexamen) as the 1st-grader from Hochschule fuer Musik Dresden.

She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master classes held by top class professors, such as Pvael Gililov, Anatol Ugorski, Armulf von Arnim, Arkadi Zenziper, Felix Gottlieb, Stanislav Pocheikin, Ik-joo Moon, Hyoungjoon Chang. Furthermore, she participated in Dresner Master Class Festival where she received scholarship from the DAAD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Recently, her book titled "Mus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was published and her CD "Liebe Schumann" was released by Sony Classical Music. She was a lecturer in Chugye and Chongshin University, Seoul and is slowly building her career in the education field.



이나래 Narae Lee (cello)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주 홍콩한국대사관 초청 문화의 날 연주

청소년, 직장인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다수 진행

다양한 클래식, 대중음악 음반 녹음 참여

Graduated from Seoul Arts high school

Graduated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alzburg, Austria Mozarteum National Academy

Korean Embassy in Hong Kong invited to perform on Cultural Day

Many concerts with commentary for youth and office workers

Participate in recording various classical and popular music records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1 작품공모

한국전자음악협회는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1에 연주될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 음악제 기간

2021년 10월 14일 - 17일

◆ 공모 분야

1. 테이프 Fixed media음악
2. 악기4명 이내와 전자음악테이프 혹은 라이브
3. 라이브 전자음악 악기없이
4.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작품

◆ 공모 규정

1. 작품은 2016년 이후 작곡된 것이어야 함
2. 작품의 길이는 12분 이내여야 함
3. 악기를 동반한 전자음악일 경우 연주자는 4명 이내여야 함
4. 특수한 악기를 동반한 음악일 경우 작곡가의 책임 하에 악기와 연주자를 동반하여야 함
5. 모든 작품은 8채널까지만 가능
6. 두 작품까지 접수 가능하나 서로 다른 공모분야의 작품이어야 함

◆ 공모 접수 마감 (온라인)

1. 2021년 2월 1일 월 오후6시 서울 시각, UTC+9
2. 선정된 작곡가는 연주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을 의무로 합니다.

◆ 지원정책

1. 당선된 작품의 연주에 필요한 비용연주자 사례비3명까지, 악기 렌탈비 등은 본 회가 지불합니다.
2. 이 정책은 본 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1.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이메일 <master@keams.org>로 작품 관련 파일 (아래 2,3번 참조)들을 보낼 것
 - 단, 첨부파일로 보내지 말고 dropbox.com, wetransfer.com, copy.com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링크를 제출
2. 오디오 파일은 반드시 스테레오 버전으로 올릴 것 (포맷: mp3, AIFF, WAV 중 택일)
 - 라이브 전자음악일 경우: 녹음된 오디오 파일있을 경우, mp3과 관련 파일패치, 도큐먼트, 프로그램 등을 업로드
 - 악기를 동반한 전자음악일 경우 반드시 악보 PDF 업로드 MIDI음원 가능
 - 오디오-비주얼 작품일 경우: 영상 파일은 mp4, mov, avi 등의 포맷으로 올리되, 전체 용량이 1GB를 넘지 않게 할 것 youtube 혹은 vimeo 링크를 제출해도 무방

3. 다음 정보를 담은 도큐먼트 파일 업로드 (포맷: TEXT, RTF, DOC, HWP 중 택일 / PDF는 안됨)

- ① 성명
- ② 성별
- ③ 국적
- ④ 전화 (휴대전화)
- ⑤ 이메일
- ⑥ 홈페이지 (있을 경우)
- ⑦ 프로필 Biography
- ⑧ 작품제목
- ⑨ 작품길이
- ⑩공모분야
- ⑪ 악기 (있을 경우)
- ⑫ 오디오 아웃풋 채널 수
- ⑬ 프로그램 노트
- ⑭ 세계 초연/ 아시아 초연/ 한국 초연
- ⑮ 연주시 특별히 필요한 요구 사항 (있을 경우)

4. 공모참가비

- US\$ 20 한국전자음악협회 회원은 참가비 면제
 - 참가비 입금방법은 웹사이트를 참조
5. 기타 사항
- 이메일을 보낸 후 2~3일 내에 답장이 없을 경우 다음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trebari@gmail.com>
 -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및 기타 정보

master@keams.org
www.computermusic.asia
회장 이돈웅

CALL FOR WORKS -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2021

The Korea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KEAMS) is proud to announce the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SICMF) 2021.

◆ DATE

2021. OCT. 14 - 17

◆ CATEGORIES

1. Tape Fixed media music
2. Electro-acoustic musictape or live with instruments up to 4 players
3. Live electro-acoustic music without instrument
4. Audio-visual media art

◆ RULES & REGULATIONS

1. The submitted work has to be composed after 2016.
2. The duration has to be less than 12 minutes.
3. For the works of the category #2, the number of players is limited to 4.
4. For performances requiring non-standard or special instruments, compos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instruments and the performers on location.
5. Channels for audio playback are limited to 8 channels.
6. Up to two works may be submitted, but they must belong to different categories.

◆ SUBMISSION DEADLINE (ONLINE)

1. Monday, 1 February 2021, 6pmUTC+9
2. Attendance at the festival is required for all participants.

◆ SUPPORT POLICY

1. We agree to pay all costs for performing selected works performer fees up to 3 performers, instrument rental, etc.
2. This policy may be subject to change.

◆ HOW TO SUBMIT

1. Only online submissions are allowed.
 - Send an email to <master@keams.org> with the link to the files refer to #2 and #3 described below
 - Do not attach the media files but send us the link. Use the web services such as dropbox.com, wetransfer.com
2. Media Files
 - Audio files must be in stereo mp3, AIFF, or WAV
 - For the works with instruments, submit the score PDF or MIDI.
 - For the live works, submit the recorded audio file and/

or related files patchers, documents, etc..

- For the audiovisual works, submit the video files mpeg, mov, avi, etc.. The total size of the files should be less than 1GB.

3. Document (format can be either TEXT, RTF, or DOC, but not PDF) that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 ① Last Name
- ② First Name
- ③ Male / Female
- ④ Nationality
- ⑤ Email
- ⑥ Homepage if any – Biography
- ⑦ Title of work
- ⑧ Duration
- ⑨ Category
- ⑩ Instruments if any
- ⑪ Number of Audio Output Channels – Program Notes
- ⑫ World premiere / Asia premiere / Korea premiere
- ⑬ Special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if any

4. Entry Fee

- US\$20
- Visit our website to pay

5. Additional Notes

- If you get no response from us after your submission, please email us to this alternate address: <trebari@gmail.com>
- If you wish to submit offline, please contact us via email as early as possible.

◆ FOR FURTHER INFORMATION

master@keams.org
www.computermusic.asia
Donung Lee, President

한국전자음악협회 학술대회 2021 발표 및 컴퓨터음악저널 에밀레 19호 원고 공모

한국전자음악협회는 2021년도 연례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컴퓨터음악저널 에밀레> 출판을 위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저희 단체는 전자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컴퓨터 음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2021년도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http://www.computermusic.asia/>) 기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컴퓨터음악저널 에밀레> 제19호를 발간합니다.

연구물 혹은 워크숍 아이디어를 2021년도 학술대회에서 선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공백을 포함한 2000자(음절) 이내로 된 제안을 악력과 함께 PDF문서로 작성하여 emille@keams.org로 보내주시시오.

◆ 학술대회 언어 : 영어

◆ 학술지 언어

영어, 한글(한글 논문의 경우 2-300자 내외의 영문 요약문)

◆ 분류

한국전자음악협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다양한 연구물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음악과 과학의 창조적인 만남
- ㉡ 다학제적 연구 및 학제간 연구 (따라서 여러 저자의 공동 연구물 포함)
- ㉢ 체계적 음악학 (전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학, 음악이론)
- ㉣ 전자 음악 및 컴퓨터 음악 작품의 분석
- ㉤ 음향 합성
- ㉥ 음악 심리학
- ㉦ 악기론
-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새로운 악기의 개발
- ㉨ 음악 소프트웨어 공학
- ㉩ 음악 인공 지능
- ㉪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작곡 및 분석
- ㉫ 자동 작곡
- ㉬ 미학 등.

◆ 주요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일 : 2021년 3월 31일
- 제안서 승인 통보일 : 2021년 4월 30일
- 학술 대회 이전 원고 제출 마감일 : 2021년 10월 11일
- 학술 대회 : 2021년 10월 14-17일
- 학술지 논문 게재 여부 통보일 : 2021년 11월 2일
- 최종 원고 제출 : 2021년 12월 2일

◆ 세션 구성

- 1. 하나의 세션은 1-4개 정도의 발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2. 각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연구물 발표 시간은 약 25분이며 약 5분간

질의 문답 시간이 뒤따릅니다.

- 3. Keynote 발표자에게는 약 50분의 발표 시간과 약 10분간의 질의 문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 4. Keynote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획안을 제출할 때 keynote를 희망한다고 명시하십시오.
- 5. 워크숍은 대략 90분이 주어집니다.
- 6. 인터넷 화상 채팅을 이용한 발표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원고 계획안을 묶어 하나의 세션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워크숍 세션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1. 연구물 발표 세션 계획*

(4 x 30 분 = 25 분 발표 + 5 분 질의응답)

세션

Spatialization

발표 1 8 channel 이하에서의 방법들에 대한 고찰

발표 2 Loudspeaker Orchestra의 활용 예에 대한 고찰

발표 3 Ambisonics와 Spherical Acoustics의 활용 예에 대한 고찰

발표 4 여러 형태의 차원 오디오 재생 시스템이 가능한 유동적인

연주회장 마련의 기획안

* 세션 계획 없이 여러 개의 원고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2. 워크숍 세션 계획안**

(3 X 90 분)

세션

작곡 및 음향설치에 필요한 Controller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

워크숍 1 다양한 Sensor들과 Arduino를 이용한 Controller

워크숍 2 Smartphone과 Tablet PC를 Controller로 사용하기

워크숍 3 Interapplicational Controller (Processing에서

MaxMSP와 SuperCollider, PD, Csound를 제어하기)

** 세션이 아닌 단독 워크숍 제안도 가능하며, 세션에 대한 계획 없이 여러 개의 워크숍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및 논문 게재료

이 사업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와 원고 게재료가 없습니다.

연구물의 내용에 따라 학생과 비전공자에게도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학술지 조직위원회에 의해 면밀히 평가되며, 오로지 연구 내용의 우수성에 의해서만 채택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학술대회와 에밀레를 풍성하게 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CALL FOR PROPOSALS

KEAMSAC 2021 & Computer Music Journal Emille Vol 19 The Korean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 (KEAMS) is pleased to announce a call for proposals for the 2021 KEAMS annual Conference (KEAMSAC 2020) and its journal Emille.

KEAMS was formed to promote active research and discussion on electro-acoustic and computer music, and will hold the this year's conference during the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SICMF 2021: <http://www.computermusic.asia/>).

Selected papers from the conference will be published in Emille Vol. 19

If you want your paper or workshop idea to be considered for the 2020 KEAMS Conference, please send an abstract or proposal(maximum of 2,000-characters including spaces) and curriculum vitae as PDF documents to emille@keams.org.

◆ CONFERENCE LANGUAGE : English

◆ CATEGORY OF TOPICS

For the KEAMS conference, the following topics are encouraged:

- ㉠ Creative Encounters between Music and Science
- ㉡ Multidisciplinary 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authors acceptable)
- ㉢ Systematic Musicology (Computational Musicology, Computational Music Theory)
- ㉣ Analysis of Electronic and Computer-based Music
- ㉤ Sound Synthesis
- ㉥ Music Psychology
- ㉦ Instrumentation
- ㉧ Development of electronically-extended Musical Instruments
- ㉨ Music Software Engineering
- ㉩ Artificial Musical Intelligence
- ㉪ Computer-aided Composition/Analysis
- ㉫ Automatic Composition
- ㉬ Aesthetics etc.

◆ IMPORTANT DATES

- Deadline for Proposal Submission : March 31, 2021
- Notification of Acceptance of the Proposal : April 30, 2021
- Deadline for Paper Submission for the Conference : October 11, 2021

- Conference : October 15-17, 2021
- Notification of Selected Paper for the Journal Emille : November 2, 2021
- Deadline for Final Paper Submission : December 2, 2021

◆ SESSION FORMATS

- 1. Each session will consist of up to four presentations.
- 2. Each paper will be presented in person for about 25 minutes followed by ca. 5 minutes of discussion.
- 3. If you want to give a keynote presentation, you will be given about 50 minutes to present, followed by ca. 10minutes of discussion.
- 4. Please include the word keynote in your submission if you are planning on applying for a keynote presentation.
- 5. The length of each workshop will be about 90 minutes.
- 6. Video conferencing over the Internet is also available.

As demonstrated by the following examples, participants may submit more than two proposals, making a whole presentation session or an additional workshop session:

Example 1. Presentation Session Plan*

(4 x 30 min. = 25 min. presentation + 5 min. Q&A)

Session

Spatialization

Presentation 1 Spatialization methods using less than 8 channels

Presentation 2 An overview of the design of a

Loudspeaker Orchestra

Presentation 3 Applications of Ambisonics and

Spherical Acoustics

Presentation 4 A proposal of multi-3D audio reproduction system for the multi-functional concert hall

* You may submit several proposals without a session plan.

Example 2. Workshop Session Plan**

(3 X 90 min.)

Session

Using controllers for composition and sound

installations

Workshop 1 Controllers using various sensors and Arduino

Workshop 2 Use of Smartphones and Tablet PCs as

controllers

Workshop 3 Inter-application uses of Controllers

(Using Processing to Control Csound, MaxMSP,

PD and SuperCollider)

CALL FOR PROPOSALS

** You may submit a single proposal for a workshop and submit multiple proposals for individual workshops without a session plan.

◆ FEES

Thanks to funding from the Korean Arts Council, the registration fee and publication fee will be waived. It is also possible for students and non-experts in the fields mentioned above to submit proposals for the conference and the journal, Emille. All proposals will be screened by the program committee and selected solely based on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nd topic. Your ideas are critical in making the conference and Emille enriching. We look forward to reviewing everyone's entry.

fest-m 2021 작품공모

fest-m은 한국의 젊고 개성있는 작곡가들의 컴퓨터음악 축제입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연주됩니다. 올해 에도 젊은 작곡가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fest-m 2021는 4월말 혹은 5월초 열릴 예정입니다.

◆ 응모 작품 분야

1. 테이프 음악
2. 라이브 전자음악 (인성 혹은 악기와 전자음악)
3. 오디오-비주얼 작품
4. 실험적 전자음악 작품EDM과 같은 대중적 작품 포함

◆ 제출할 것

1. 다음 항목을 담은 문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전화 (휴대전화)
 - ④ 이메일
 - ⑤ 작품길이
 - ⑥ 공모분야
 - ⑦ 악기 (있을 경우)
 - ⑧ 오디오 아웃풋 채널 수
 - ⑨ 약력
 - ⑩ 연주시 특별히 필요한 요구 사항 있을 경우
2. 작품해설
3. 관련 자료 (악보, 녹음, 공연을 위한 Max 패치, 비디오 등)
4. 공연에 필요한 장비 목록 및 세팅

◆ 응모 마감

2021년 3월 31일토 오후6시

◆ 응모 방법

이메일 master@keams.org로 파일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 단, 첨부파일로 보내지 마시고 대용량파일첨부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dropbox.com 혹은 wetransfer.com 같은 웹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 규정 및 참고 사항

1.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작곡가
2. 작품의 길이는 10분 이내
3. 한국전자음악협회에서는 공연장 및 공연장비를 제공하며, 연주자를 위한 소정의 연주료1인 10만원, 최대 3인까지를 지원합니다.
4. 별도의 응모 접수비는 없습니다.
5. 응모된 작품은 예선 심의를 거쳐 4월중 한국전자음악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6. 공연당일 실연심사를 통해 공연의 최우수작은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1'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 master@keams.org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20 실행위원회

감독	이돈응
조직위원	김태희, 오예민, 김범기, 조영미
실행위원	전현석
연주감독	장대훈, 유태선, 이원우
출판분과	장대훈, 김한신
홍보분과	장재호, 남상봉, 유태선
재무	김자현
학술대회/에밀레	조영미, 조진옥
무대음향	궁석제
조명	박민규, 홍예슬, 노우영
영상녹화	이화미디어
무대스텝	최봉금, 김가현, 정승연, 한상혁
디자인	김명현, 박상우
인쇄	(주)마이프린팅
음향장비	다산에스알
방염스크린	이안아이티
번역	에디티지
온라인홍보	뉴스캐스트

SICMF 2020 Executive Committees

Director

Donung Lee

Organizing Members

Taehi Kim, Yemin Oh, Bumki Kim, Youngmi Cho

Concert Director

Hyunsuk Jun

Music Director

Daehoon Jang, Taesun Yoo, Wonwoo Lee

Publication Coordinator

Daehoon Jang, Hanshin Kim

Public Affair Coordinator

Jaeho Jang, Sangbong Nam, Taesun Yoo

Treasurer

Jahyun Kim

Conference/Emille

Youngmi Cho, Jinok Cho

Acoustic Operator

Sukjae Goong

Lighting

Minkyu Park, Yeseul Hong, Wooyoung Noh

A/V Recording

Ewha Media

Stage Manager

Bongeum Choi, Kahn Kim, Seungyeon Jung,
Sanghyuk Han

Design

Myunghyun Kim, Sangwoo Park

Printout

myPrinting Inc.

Sound equipment

DASANSR.com

Projector screen

EANIT.modoo.at

Translation

Editage.co.kr

Press release

Newscast.co.kr